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 효과 분석

-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병행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이 영 선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 효과 분석

-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병행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정 동 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10**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이 영 선

이영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12** 월

위 원 장 **신 정 철** (인)

부위원장 **엄 문 영** (인)

위 원 **정 동 욱**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등학생은 진로 의사결정 시 부모를 크게 고려할 뿐 아니라, 학부모의 진로교육관이 학교가 진로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 학교를 통해 학생에게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학부모에게도 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에 국가 진로교육 정책의 시행으로 단위학교가 진로교육 자원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정도에 따른 정책의 효과가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병행하게 하였을 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이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병행한 학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교육부 진로진학 현황조사 2016년~2018년 자료의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도고정효과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적용한 합동최소자승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 정책으로 학부모 대상 진로강연인 진로아카데미가 대표적이었으며, 교육내용으로 부모-자녀 간 관계 이해, 직업 및 학과 정보, 학교 진로교육 및 대학입시 정책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지역교육청 간, 학교 간 시행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진로교육 정책의 물적 자원으로 진로체험기관 수를 많이 활용하는 학교에서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

다. 또한, 학교에 진로교육 독립 공간이 설치되었을 때 공간이 없는 학교에 비하여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이 더 높았다.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진로교육 정책의 인적 자원인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경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진로교육 정책의 물적 자원들이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 증가하였다. 진로전담교사의 경력과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및 고교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위학교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운영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진로전담교사가 학부모 진로상담을 통해 교육 수요를 발굴하여 내실 있는 학부모교육을 제공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학교가 활용하는 진로체험기관을 늘리고, 독립된 진로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교에 진로교육 물적 자원을 공급하는 정책을 지속하여야 한다. 끝으로,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게끔 학교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리자와 동료 교사 또한 협력해야 하며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어 :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진로개발역량,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학교 진로교육 자원, 사회인지 진로이론

학 번 : 2018-21619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 2 절 연구문제 ····· 4
제 3 절 연구의 의의 ····· 6
제 4 절 연구의 한계 ····· 8

제 2 장 이론적 배경 ····· 10
제 1 절 진로교육 성과와 진로개발역량 ····· 10
1.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 ····· 11
2. 진로개발역량 ····· 12
3. 진로개발과 부모의 영향 ····· 19
제 2 절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 ····· 24
1. 고등학교급의 진로교육 정책 개관 ····· 24
2. 관련 선행연구 분석 ····· 36
제 3 절 이론적 모형 ····· 44
1. 사회인지 진로이론 ····· 44

제 3 장 연구 방법 ····· 48
제 1 절 연구 모형 및 가설 ····· 48
제 2 절 분석 자료 및 대상 ····· 51
제 3 절 분석 방법 ····· 52
제 4 절 주요 변수 구성 ····· 54

제 4 장 연구 결과 ····· 58
제 1 절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현황 ····· 58
제 2 절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 ····· 63
제 3 절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병행에 따른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차별적 효과 ····· 71

제 5 장 논의 ····· 75
제 1 절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학교에서 고등학교 진로교육 성과 제고 ····· 75
제 2 절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에 따른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 효과 제고 ····· 77
제 3 절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에서 투입한 물적·인적 자원의 효과 ····· 78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82
제 1 절 요약 ····· 82
제 2 절 정책적 제언 ····· 84
제 3 절 학술적 제언 ····· 87

참고문헌 ····· 90
부록 ····· 103
Abstract ····· 107

표 목 차

[표 2-1] 학교 진로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 ····· 12
[표 2-2] 진로개발역량의 구성 영역 ····· 18
[표 2-3] 청소년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 선행연구 23
[표 2-4] 진로전담교사 배치 현황 ····· 26
[표 2-5]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정책 변화 ····· 33
[표 3-1] 주요 변수 구성 및 설명 ····· 57
[표 4-1]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교육내용 ····· 60
[표 4-2] 학교의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 ····· 65
[표 4-3] 고등학교 진로교육정책이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67
[표 4-4] 고등학교 진로교육정책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 69
[표 4-5]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병행에 따른 진로교육정책의 차별적 효과(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 72
[표 4-6]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병행에 따른 진로교육정책의 차별적 효과(진로개발역량) ····· 74

그 림 목 차

[그림 2-1] 고등학교 진로활동실 확보율 ····· 27
[그림 2-2] 고등학교에서 활용하는 진로체험기관 수 ····· 29
[그림 2-3] 사회인지 진로이론 선택 모형 ····· 46
[그림 3-1] 이론적 분석 틀 ····· 50
[그림 4-1] 고등학교의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률 ····· 61
[그림 4-2] 2017년 지역별 학교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률 62

부 록 목 차

[부록 1] 진로개발역량 구성 영역별 하위 요소 ····· 103
[부록 2]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진로개발역량 측정 문항 (고등학생)
····· 105
[부록 3] 주요 변수 연도별 기술통계 ····· 10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가 진로교육의 책무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OECD, 2010).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학생의 졸업 후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져왔으며, 진로교육은 공교육 혁신과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 의의가 증첨 되어 왔다(정진철, 김나라, 최지원, 2013).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강화되었고, 201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모든 국민의 진로개발을 지원할 국가와 교육계의 책무를 규정하였다(교육부, 2011b; 교육부, 2016a). 이처럼 지난 10년간 진로교육은 급격히 확대되어 명실공히 공교육의 교육목표로 안착하였다. 따라서, 최근 연구는 정책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에 확충한 진로교육 인프라와 관련 자원 투입이 학생에게 진로교육 성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고 평가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윤형한 외, 2016; 정철영 외, 2015).

2000년대부터 큰 틀에서 지속 되어 온 국가 진로교육 정책 방향을 평가하여 개선하는 연구는 미래사회 국민 역량으로 요구되는 진로개발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이다. 또한, 진로교육 정책이 오래 시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은 진로 준비와 결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학교 진로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진로교육 정책 효과에 관한 실증적 논의가 요구된다. 2017년 4년제 대학생 응답자의 60%가 졸업 후 진로를 가장 큰 고민으로 보고하였으며(장현진, 2017), 최근 유행하는 '대2병'이라는 단어 역시 진로방황으로 우울과 스트레스를 겪는 청년들의 삶을 보여준다(김민선, 2018; 오인수, 손지향, 조유경, 2018; 조선일보, 2019.5.13.).

전공 및 취업 시장의 경기에 영향을 받는 대학생의 진로뿐 아니라 고등학생 역시 학교 진로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교 진로교육의 문제는 간과하기 어렵다. 2018년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이 학교급 중 가장 낮다고 보고된다(정은진, 2018a). 또한, 학계에서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현장에서 생애 진로개발역량을 증진하려는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가 명문대 진학 요구와 부딪혀 여러 모순적인 지점이 있다고 밝혀왔다(박나실, 2017; 이인수, 2017). 그 결과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학교 진로교육과 이를 강화하려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도 이어졌다(모영민, 2018; 이호준, 김영식, 양민석, 2019).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앞두고 중요한 진로 전환을 앞두고 있음에도(이정민, 정혜원, 2016), 학교 진로교육 정책에 대하여 이처럼 회의적인 시각은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왜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에서 찾고자 하였다. 고등학생의 진로선택 시 학교 교육 못지않게 가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남수경, 2011; 황여정, 2007). 최근에도 고등학생들은 부모를 통해 희망직업 정보를 얻고 있으며(정은진, 2018a),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부모의 영향력이 지대한바, 부모의 비합리적 진로지도, 부모-자녀 간 갈등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양미진, 허자영, 채민정, 김경민, 2010; 이은숙, 김민정, 2017). 그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위주의 교육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인식은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었다(이재창, 1994; 이지연, 2014; 동아일보, 2019.1.15.). 즉,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방향이 학부모의 진로・직업관과 일치되지 않을 때 고등학교 교사들은 진로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정이, 홍지영, 김진희, 2015; 이인수, 2017). 따라서, 자녀 진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전환하여 진로교육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진로교육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데 선결 조건으로 볼 수 있다(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송민경, 2012; 장혜정, 2019).

이에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 역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교육과학기술부, 2012a) 학계 관심은 비교적 저조하였다. 진로교육 효과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학생의 진로체험 참여가 진로성숙 및 학업성취에까지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김기헌, 유홍준, 오병돈, 2014 등). 또한, 학생의 가정 및 부모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혀졌는데(김재희, 2019;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 2009), 이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할 때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소라, 문승태, 2017; 장현진 외, 2016). 그러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에 관한 논의는 조희경 외(2013)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였다. 이들은 교육 운영 기관과 참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진행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과 학교 진로교육 정책 효과와의 관계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처럼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진로교육 정책에 포함되어있으나 관련 연구를 통한 효과 검증과 발전적 논의가 부족하다면 정책을 지속하고 보완해 나갈 당위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으로 학교에 공급하는 진로교육 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진로교육 성과(outcomes)인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다. 또한, 진로교육은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병행하는 학교에서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즉, 본 연구는 교육부 진로교육 정책에 관하여 학교 진로교육 투입 실태를 확인하고 투입 격차 해소를 주장하는 논의에서 나아가 성과가 증진되고 있는지 연구를 수행하며, 이 정책 효과가 학부모를 고려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밝혀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 결정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며, 이에 진로교육 정책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를 검증하며,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서 진로교육 정책 자원의 효과가 조절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먼저, 진로교육 정책의 하나인 학부모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즉,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에서 어떤 교육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진로교육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계량분석 결과를 보여주기에 앞서 실제로 현장에서 정책이 집행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라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인지 내용과 운영 양상을 통해 추론하여 이어지는 회귀분석의 결과와 함께 논의하기 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계획문서를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2]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이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다음으로,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투입된 학교의 진로교육 물적·인적 자원과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이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즉, 진로체험기관 수와 진로교육 전용 공간으로 대표되는 물적 자원과 진로전담교사의 경력으로 대표되는 인적 자원, 그리고 학부모 진로교육 운영이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와 함께 학부모 진로교육 운영이 진로교육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3]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병행한 학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끝으로, 학교가 학부모를 고려한 진로교육을 병행하였을 때, 진로교육 물적·인적 자원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진로교육 물적·인적 자원과 학부모 대상 진로강연 운영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검증하였다. 이는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이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진로개발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다.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지지하고 합리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게끔 진로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높이고,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교 진로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인적 자원 변인을 정책 시행을 대리하는 지표로 활용하여 고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고등학교에 진로교육을 강화하고자 정책이 꾸준히 확대되어왔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저조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은 교육과정 개정,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연수 등 교원 정책, 입학사정관제 시행 이후 계속된 대입 전형 개편 등 여러 정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인수, 2017). 즉, 학생의 진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와 교육활동이 매우 다양해서 이 맥락을 통제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진로교육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같은 시기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책의 처치-대조집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도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논의하고자 일부 연구들은 학과체험, 진로캠프 등 여러 유형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어떠한지 비교하였다(김기헌 외, 2014; 이상준, 2011). 즉, 진로교육 참여 혹은 경험 여부를 주요 변수로 분석한 것인데, 이는 진로교육 경험의 효과이지 정책 시행의 효과로 직접 해석하기는 어렵다. 학교에 진로교육이 공급되더라도 진로교육을 받는 경험은 모든 학교,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백선희, 심우정, 2018). 즉, 학생의 진로교육 경험은 학교가 진로교육활동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했는지와 학생이 이를 선택하여 참여했는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효과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자 고등학교에 진로교육을 목적으로 투입된 물적·인적 자원인 진로체험기관, 진로교육 공간, 그리고 진로전담교사의 경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의 효과를 다루었다. 이러한 시도는 변수가 포괄하는 정책의 범위와 연구 설계, 통제변수 활용에 분명

제한이 따른다. 하지만, 사례 연구와 문헌 연구에 머물던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을 대규모 데이터로 분석하여 일반화되고 계량화된 논의의 지평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를 더욱 높이는 요인을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에서 찾아 정책 효과 제고 방안을 시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즉, 진로교육 정책을 위해 투입된 물적·인적 자원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자원 투입의 효과가 어떤 경우에 촉진되는지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모영민, 2018; 이인수, 2017) 본 연구는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활발히 진행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저해될 수 있음에 착안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개발과 진로 결정에는 부모가 높은 비중으로 관여하고 있으며(안선영 외, 2012), 따라서 학부모 역시 진로교육 정책에서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병행할 때 학교에 물적·인적 자원을 공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의 효과가 촉진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지금보다 더 우선순위를 높여 제공되었을 때 학교 진로교육 전반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진로를 강조하는 흐름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도 맞닿아 있다(정진철 외, 2013). 즉, 학계 전반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을 넘어 학습자 중심 교육과 교육의 다양화가 교육정책의 향후 과제로 지목되는 바(이종재, 이차영, 김용, 송경오, 2015),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의 건전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탐색하는 논의를 진로교육에서부터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범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진로발달이론 중 대표적인 Super의 이론에서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진로 과업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er, 1990).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다르기에 같은 교육자원이라도 활용하는 양상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진로지도 태도와 방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내용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이며, 표집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초등학교, 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일반화해서 논의하기 어려우며,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둘째, 일반고라는 동일 집단 내에서도 학생 개인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재희, 2019). 또한, 학생의 내적 동기 및 진로성숙도, 학습 태도에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김영식, 이기정, 2016; 김신영, 최운실,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하는 정책의 효과와 학부모 진로교육 운영에 따른 조절 효과는 모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평균적으로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학생특성과 가정배경의 맥락에 따른 차별적 효과 역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로 논의하기는 어려운데, 회귀분석에서 미처 통제하지 못한 학교의 진로교육 열의, 노력과 같은 변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로교육 강화 정책은 선도교육청 및 연구 학교에서 먼저 도입하기 시작하고,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교육부, 2014; 서유정, 이지은, 김수진, 2013). 최근,

진로교육에 대한 강조는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지역 간, 학교 간에 진로교육 열의 및 노력 축적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진로교육 성과에 영향이 있는 학교특성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에서 정적인 유의성이 나타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 진로활동실이 있는 학교, 진로체험기관이 많은 학교에서는 이러한 물적 자원과 교육 시행 여부 외에도 학교의 진로교육 의지와 같이 자료에 없는 변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학교 전반의 진로교육 풍토로 인해 학생들의 진로교육 참여가 더 적극적이고, 우호적일 수 있다. 그 외에도 학생의 자기효능감, 교사,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 등의 개인 특성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로 보고되고 있으나(정미나, 노자은, 2017), 데이터의 부재로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변수 간 상관이 있다는 선에서 논하였으며, 누락 변수(omitted variables)를 엄밀히 통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대규모 횡단면 통계자료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양(量)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어떤 이유로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인과 기제(causal mechanisms)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즉, 양적 분석의 결과만으로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인과관계로 결론짓기 어렵다(하연섭, 2008; p. 256~257). 따라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시행 학교와 미시행 학교의 차이, 교육 운영의 맥락을 설문 또는 면담 연구를 통해 추가로 밝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와 시행하지 않는 학교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시행한 학교에서 학부모의 가정 진로지도가 변화했는지,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체감하였는지 등 효과의 원인을 탐색하는 사례 연구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다만, 학부모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하지 않은 학교에 비해 학생의 평균적인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이 더 높다는 선에서 논할 수 있으며,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서론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기에 앞서 고등학생의 진로개발과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무엇이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인지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어서, 진로개발역량의 개념을 탐색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밝힌 선행연구를 다방면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급에서 진로교육 정책이 변화해온 양상과 정책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청소년의 진로개발에 있어 환경·맥락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밝힌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였고 분석결과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진로교육 성과와 진로개발역량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로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에 학교 진로교육 성과로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이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언급되고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등장 배경과 개념 정의, 구성요소를 설명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에는 부모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관련 선행연구를 개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영향이 학생의 진로개발에 긍정적으로 발휘되려면, 학부모의 역할과 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1.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는 무엇인가? 교육성과는 교육 주체가 선정한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현장에서 실제 수행되고 있는지와 이를 통해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및 성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나승일 외, 2011; 서유정 외, 2013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학교 진로교육의 현황을 파악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투입-과정-산출/결과로 진로교육 성과의 체계를 정리하였다(서유정 외, 2013; 장현진 외, 2015; 장현진, 윤형한, 임건주, 2017; 정철영 외, 2019).

서유정 외(2013)는 진로교육 성과를 교육환경과 관련된 외재적 결과(output)와 내재적 결과(outcomes)로 구분하였다. 외재적 결과에는 학교의 실행 정도, 진로교육 운영실적 등 투입과 과정의 요소가 해당하고, 내재적 결과에는 학생들의 진로 인식변화와 향상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가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진로교육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진로목표와 실천, 진학목표, 희망직업이 포함되어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도 [표 2-1]과 같이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를 수요자인 학생의 학교 교육활동 만족도와 학생에게 나타난 진로의식 변화 측면을 모두 제시하였다(장현진 외, 2015).

[표 2-1] 학교 진로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

	투입	과정	성과
의미	학교 진로교육 자원, 환경 및 지원	학교 진로교육 활동 운영 및 참여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성과 및 요구
조사 내용	•학교 진로교육 환경 및 여건 •학교 진로교육 네트워크 •관리자의 인식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 내용 •학생의 학교 내외 진로활동 참여 •학부모의 학교 내외 진로활동 참여 •담임교사 진로지도 내용 •가정의 진로교육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및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의 진로의식 성숙 수준 (학생 진로개발역량 등)

주: 진로교육 현황조사(장현진 외, 2015; 장현진 외, 2016)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에 따라 교육청,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실제 확산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성과평가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평가에서는 학생의 진로교육 정책 만족도가 지표로 활용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1.18.). 그 후에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장현진 외(2017)의 연구에서는 산출(성과) 영역으로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함께 진로개발역량을 장기적으로 추가할 것을 제언으로 남겼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로 간주하기 적합한 성과 항목이라고 판단하였다.

2. 진로개발역량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가.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진로개발역량

2015년에 개정된 학교 진로교육의 전체 목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교육부, 2016b). 즉, 학교 진로교육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진로교육법 제4조)[1], 이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 언급된 6가지 핵심역량[2]과도 연관이 깊다(교육부, 2016b). 학교 진로교육의 세부목표는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 학년에 따라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차이를 두었으며, 고등학교급은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인 일반계고에서 진로교육은 '미래직업 세계 변화에 대한 이

1)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제1항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나타난 6가지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교육부, 2016b; p16).

해를 바탕으로 학생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진로정보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16b).

상술한 바와 같이,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직업 매칭(matching), 일에 대한 순탄한 적응(adjustment)이 아닌 '역량(competencies)'으로 제시되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진로발달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온 것이다. 진로 구성주의 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 혼돈이론(Chaos Career Theory)과 같은 포스트모던 진로발달이론에서는 더는 '진로'를 선형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전제하지도 않는다. 대신 개인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주체적으로 적응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주관적인 이야기를 구성해간다고 본다(Savickas, 2013; Pryor & Bright, 2003). 따라서, 진로교육과정도 학생이 타고난 기질에 적합한 직업을 안내하는 전통적 관점을 넘어서 역동적인 일의 세계에 유용한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임효신, 2015).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개발역량을 목표로 하는 진로교육은 학생의 태도, 행동이 변화 가능함을 내포하며, 향후 삶에서 마주할 진로개발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겠다(최동선 외, 2008).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는 일차적으로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참여와 만족을 끌어내야 하기에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가 진로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나승일 외, 2011; 서유정 외, 2013에서 재인용).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진로개발역량을 갖추게끔 교육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개발역량을 진로교육 정책의 목표이자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진로개발역량의 개념

그렇다면, 진로개발역량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기존 연구들은 이를 '진로(career)' 또는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에 '역량'이 합쳐진 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고재성, 2010; 임효신, 2015; 정미나, 임영식, 2013; 조영아, 정철영, 2013 등).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역량의 개념을 먼저 살펴본 후, 진로개발역량을 논하고자 한다[3].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계기로 핵심역량이 학교 교육 영역에 들어와 담론을 형성하였다(소경희, 2007). DeSeCo 프로젝트에서 역량(competencies)은 특정한 맥락 속에서 맞닥뜨리는 복잡한 요구를 지식, 기술,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충족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OECD, 2005).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2007)은 역량 개념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역량의 특징을 총체성, 수행성·가동성, 맥락성, 학습 가능성으로 도출하였다. 즉,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동기 등 다양한 인간 특성이 포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또한, 효과적인 수행과 관련이 있으며, 실제 상황과 맥락에 맞물려서 드러난다. 끝으로, 이러한 능력은 경험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한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역량을 범주화하고 최종적으로 9개의 기초능력을 추출하였는데, 그중 하나인 생애 계획과 개인의 목표 과업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능력[4]이 진로개발역량을 뜻한다(최동선 외, 2008; OECD, 2005). 이 외에도 학교 교육의 역량 지표를 개발한 국내 연구에서 진로역량 또는 진로개발능력을 핵심역량으로 포함하여 제시해 왔다(김창환 외, 2013; 성은모, 최창욱, 2013; 이광우 외, 2008).

---

3) 역량의 개념은 합의되지 않았으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많은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여기서는 학교 교육의 논의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다룬다.

4) "the ability to form and conduct life plans and personal projects"(OECD, 2005).

대표적인 국내 연구들은 진로개발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임언 외(2008)는 생애 동안 개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경험의 총체를 '진로'라고 정의하였으며 진로를 자기 주도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 준비, 비교, 평가하며 관리해내는 지식, 기술과 태도를 진로개발역량이라고 하였다. 이지연 외(2009)의 연구에서도 임언 외(2008)의 개념을 바탕으로 진로개발역량이 삶 전반의 일에 관한 경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성향과 같은 개인 차원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진성희, 성은모, 최창욱(2015)은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진로설계 활동은 협의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광의의 진로개발 활동에는 개인이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경험을 선택, 계획, 준비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청소년은 의도하지 않은 경험과 여가, 도전을 통해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 넓은 의미의 진로개발역량을 청소년의 역할, 경험, 관계가 상호작용하면서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일생에서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신만의 독특성을 개발하며 가치를 찾아가는 역량(성은모, 최창욱, 2013)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은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혼용될 수 있다(길혜지, 백순근, 양현경, 2018; 김소라, 황영준, 2016; 김소라, 문승태, 2017; 장현진, 2019 등). Super(1957)와 Crites(1978)가 개발, 발전시킨 진로성숙은 진로개발역량 지표가 보급되기 전에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를 논하는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서유정 외, 2013; 윤형한 외, 2016).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진로발달 수준 또는 발달과업 수행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성숙의 개념에 비추어 진로성숙이 높은 사람은 곧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역량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박효희, 성태제, 2008; 박미란, 이지연, 2010). 그러나 최근에는 측정 지표가 개발되고 데이터가 보급되면서 이 둘을 구분하여 진로교육의 성과로 진로개발역량을 활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었다(김재희, 장현진, 2018; 장현진, 2018). 최동선 외(2008)는 진로발달은 심리발달의 전제인 비가역성이 적용되지 않고 순환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스스

로 개척하고 구성하는 의지가 강조된다는 점,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에 진로개발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로 진로성숙 대신 진로개발역량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다. 진로개발역량의 구성요인

진로개발역량은 어떠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영역은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 유사한 분류로 보고되고 있었다(교육부, 2016b; 이지연 외, 2009; 임언 외, 2008; 정미나, 임영식, 2013; Hooley, Watts, Sultana, & Neary, 2013 등). 임언 외(2008)의 연구는 진로개발역량을 '개인적·사회적 발달', '진로관리', '교육적 성취 및 평생학습' 이렇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 11개의 하위요소를 포함하였다. 이지연 외(2009)는 임언 외(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11개의 하위 요소를 통합·재배치하여 진로개발역량을 5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미나, 임영식(2013)은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개발역량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자기 이해', '진로탐색', '진로계획 및 준비'의 3개 영역, 9개 하위영역으로 41개 측정문항을 도출하였다.

국외에서는 진로개발역량과 하위 요인이 국가 수준에서 공표되었는데, 캐나다의 Blueprint와 미국의 NCDG(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가 대표적이었다(최동선, 2008). 먼저, 캐나다 국민 진로개발 기준을 제시한 Blueprint는 생애/일 역량을 '자기관리 영역', '학습 및 일 탐색 영역', '생애/일 설계 영역' 3개 영역과 11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정윤경, 2008; Hooley, et al., 2013). 미국 NCDG는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더 강조하였으며, '개인적·사회적 발전', '교육적 성취와 평생학습', '진로관리'의 3개 영역과 11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윤형한 외, 2016; Hooley, et al., 2013).

전술한 연구들은 비교적 협의의 진로개발역량 개념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성은모, 최창욱(2013)은 광의의 진로개발역량 개념을 채택하여, 건전한 여가 활용을 통해 인생에 몰입하는 경험, 삶 속에서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개척정신을 진로개발역량의 주된 요소로 포함하였다. 윤형한 외(2016)의 연구에서도 진로교육을 받은 학생에게는 학습, 적응, 학교생활 등 사회·심리적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지표를 '개인·사회', '진로관리', '학업', 3개의 대영역과 10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부가영역으로 독서 생활, 행복, 학교생활 만족도 포함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볼 때, 협의의 진로개발역량 개념은 비교적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이해와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직업 및 사회 경제에 대한 탐색과 올바른 이해', '진로 결정, 설계와 실천'이 공통으로 포함되어있다. 또한, 광의의 개념 안에 포함된 협의의 개념 역시 유사하게 구분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의 구성 영역을 다음 [표 2-2]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2] 진로개발역량의 구성 영역

연구	구성 영역
임언 (2008)	• 개인적·사회적 발달 • 진로관리 • 교육적 성취 및 평생학습
이지연 외 (2009)	• 자기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과 태도 형성 • 직업 세계 이해 및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태도 형성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탐색·해석·활용 • 진로계획의 수립·관리·실천 • 진로 및 개인 삶의 목표 달성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정미나, 임영식 (2013)	• 자기 이해 • 진로탐색 • 진로계획 및 준비
캐나다 Blueprint	• 자기관리 (area a personal management) • 학습 및 직업 탐색 (area learning and work exploration) • 진로계획 및 준비 (area life/work building)
미국 NCDG	• 개인적·사회적 발전 (personal social development, PS) • 교육적 성취와 평생학습 (educational achievement and lifelong learning, ED) • 진로관리 (career management, CM)
성은모, 최창욱 (2013)	• 진로설계 (career design) • 여가 활용 (leisure use) • 개척정신 (pioneer spirit)
윤형한 외 (2016)	• 개인·사회: 긍정적 자아개념, 자기 주도성, 사회성, 시민의식 • 진로관리: 진로 인식, 진로탐색, 진로설계 • 학업: 학업 설계, 학습 태도, 학업성취 • 부가: 독서, 학교생활 만족, 행복

출처: 해당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국외 자료는 윤형한 외, 2016, 정윤경, 2008 Hooley, et al., 2013을 참고함.
주: 진로개발역량 구성 영역별 세부적인 하위 요소는 [부록 1]로 제시함.

3. 진로개발과 부모의 영향

여기서는 고등학생의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에 부모가 영향을 주는 양상을 밝힌 연구를 개관하였다. 부모-자녀 간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현상은 다양한 경로로 보고되고 있다(김소라, 문승태, 2017;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등). 이와 같은 연구는 크게 가구소득, 부모 학력과 직업, 인종과 같은 가정배경(family background)의 영향과 가정 과정 변인(family process)의 영향으로 구분된다(Hughes & Thomas, 2003).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변화 가능성이 있어 학부모 진로교육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가정 과정 변인 위주로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의 진로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⑴ 부모의 진로지지 및 희망진로 일치, ⑵ 진로 관련 대화, ⑶ 의사소통 방식 및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고, 요약하여 [표 2-3]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생의 진로 결정수준, 진로성숙 등 진로 관련 변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김수리, 이재창, 2007; 안미경, 유금란, 2013; 이주희, 문은미, 2011; 한수민, 오인수, 2014; Rogers & Creed, 2011 등). 김수리, 이재창(2007)은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역기능적(부정적) 진로사고를 낮추는 경로를 매개로 자녀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안미경, 유금란, 2013; 이지연, 2013; 등; Dietrich & Kracke, 2009; Gushue & Whitson, 2006; Perry, Liu, & Pabian, 2010). 이지연(2013)은 부모지지의 유형을 정서지지, 평가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의 4가지로 구분하여 진로성숙과의 정적 관계가 유의함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다른 변인을 통제한 후에 정보지지가 진로성숙에 영향이 있었으며,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는 평가 지지와 정보지지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사한 결과로, 안미경, 유금란(2013)은 남, 여학생 모두에게 부모의 진로지지와 자율성 지지

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하다고 밝혔다. 덧붙이자면, 남학생의 진로성숙에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만 유의한 반면, 여학생의 진로성숙에는 부모의 진로지지만이 유의한 영향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었다. 국외 연구로 Gushue & Whitson(2006)은 미국 흑인 고등학생에게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함을 밝혔다. Perry,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미국 도시 공립 고등학교 학생에게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을 매개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생의 학교 교육 참여,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Dietrich & Kracke(2009)는 독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진로지지, 간섭, 관여 부족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진로 의사결정 어려움을 설명하는 경로를 밝혔다.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 탐색을 높였고, 간섭은 의사결정 어려움을 높이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최근에는 진로지지에서 나아가 부모-자녀 간 희망진로 일치에 주목하여, 부모와 자녀의 희망진로에 합의하고 부모가 이를 조력할 때 자녀의 진로발달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었다(이근영, 연규진, 2019; Sawitri, Creed, & Zimmer-Gembeck, 2015; Sawitri & Creed, 2017 등). Sawitri & Creed(2017)는 인도네시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주의 문화권의 영향이 부모와의 지각된 진로 일치를 매개로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 포부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로 이근영, 연규진(2019)은 서울지역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진로 일치와 진로 결정의 관계가 유의하였고, 접근목표지향성, 가족인정지향성을 통한 매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부모가 자녀와 진로 관련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소라, 문승태, 2017; 이응택, 최재혁, 2017; 장현진, 2019; 황여정, 2007; Yon, Joeng, & Goh, 2012). 김소라, 문승태(2017)는 자녀가 부모와 진로 관련 대화가 충분하다고 인지할 때, 그리고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을 부모가 알고 있을 때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응택, 최재혁(2017)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진로 관련하여 부모와의 대화, 부모

의 양육 방식과 진로 정체성, 직업 결정 간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진로 관련 대화는 고등학생의 명확한 직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간접 효과도 있었다.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 태도보다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가 고등학생의 직업 결정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현진(2019)은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가 초, 중, 고등학생 모두에게 진로성숙도를 높였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Yon, Joeng, & Goh(2012) 역시 부모와의 진로 대화가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를 대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양육 태도 역시 고등학생의 진로 관련 변인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다(김희수, 2005; 김희수, 홍성훈, 윤은종, 2005; 이은숙, 김민정, 2017; 허정철, 2010). 김희수 외(2005)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진로 관련 변인 간 관계를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으로 밝혔다. 연구결과 부,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5]은 진로확신과 진로 정체성을 높이고 진로미결정을 낮추었다. 반면, 부모 모두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진로미결정을 높이는 결과가 유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은숙, 김민정(2017) 역시 부모와의 문제적 의사소통이 지각된 진로장벽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로 김희수(2005)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수용-거부, 자율-통제 양육 태도와 진로 관련 변인 간 관계에 주목하여, 부, 모의 양육이 수용적일수록, 모의 양육이 자율적일수록 자녀가 진로를 확신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의 수용적 양육 태도와 모의 자율적 양육 태도는 진로미결정을 유의하게 낮추며, 진로정체감을 높이고 있었다. 허정철(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모의 수용적 양육 태도,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정적 관계가 유의하였다. 또한, 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와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의존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유롭고 긍정적인 측면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거나 원활하지 못한 측면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김희수 외, 2005).

이상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개발과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자녀 간 진로 일치, 진로 관련 대화 빈도, 의사소통 및 양육 태도가 자녀의 진로개발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발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자녀 지지 및 긍정적 조언과 행동으로 자녀의 진로발달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소라, 문승태, 2017; 장현진, 2019; 허정철, 2010). 나아가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담,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기도 하였다(이응택, 최재혁, 2017; 이지연, 2013; Hughes & Thomas, 2003; Keller & Whiston, 2008).

이처럼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진로에 다방면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학교 진로교육보다도 부모로부터의 가정 진로지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남수정, 2011; 황여정, 2007). 황여정(2007)은 일반계고 학생의 희망전공 결정에 가정 내 진로 관련 대화와 활동이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학교의 진로교육활동 참여는 가정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또한, 학생의 진로정보 인지 수준에는 가정 내 진로지도의 영향이 학교의 진로지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6]. 남수정(2011)은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에는 가정교육과 체험기관교육의 영향이 크고, 학교의 진로 교과 및 타교과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동아리 활동, 심리검사, 상담은 영향력이 비교적 적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가정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도를 높여 부모의 교육과 상호협력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요컨대, 위 연구들은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이 부모의 진로지도 빈도 및 방식에 따라 부정적 영향까지도 받고 있고, 학교 진로교육의 영향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혀 학부모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6) 다만, 상기한 국내 연구들은 학교 진로교육이 비교적 덜 활성화된 시기의 연구라는 점에서 현시점에 적용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

[표 2-3] 청소년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연도)	주요 연구 결과
진로 지지 • 희망 진로 일치	이지연 (2013)	-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부모지지 유형 중 정보지지의 정적인 영향이 유의함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하여 부모의 정보지지와 평가지지의 정적인 영향이 유의함
	Dietrich & Kracke (2009)	- 부모의 지지(support)가 독일 청소년의 진로탐색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방해(interference)와 관여부족(lack of engagement)이 진로결정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구조방정식이 유의함
	Sawitri & Creed (2017)	- 집단주의 문화가 인지된 부모-자녀 희망 진로 일치를 통해 인도네시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방정식 경로가 유의함
진로 대화	김소라, 문승태 (2017)	- 자녀가 응답한 부모와의 흥미와 적성 학교와 학과 결정에 관한 대화빈도가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줌
	이응택, 최재혁 (2017)	- 부 또는 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빈도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직접 효과와 진로정체감을 부분 매개하여 고등학생의 직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방정식 경로가 유의함
	Yon, Joeng & Goh (2012)	-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는 고등학교 3학년의 진로성숙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중3 시기부터의 진로성숙도 변화 곡선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음
의사 소통 • 양육 태도	김희수 (2005)	- 부와 모의 수용적 양육 태도가 고등학생의 진로확신을 정적, 진로미결정을 부적으로 설명하며, 진로정체감을 정적으로 예측함
	김희수 외 (2005)	- 부와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진로확신, 진로정체감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진로미결정을 낮춤 - 부, 모 모두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진로미결정을 높임
	이은숙, 김민정 (2017)	-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의 문제적 의사소통은 진로장벽 지각을 완전매개하여 진로태도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방정식 경로가 유의함
	허정철 (2017)	-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 때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정적 관련이, 거부적일 때 의존적 의사결정과의 정적 관련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제 2 절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

2절에서는 국가 단위 진로교육 정책의 배경과 목표, 내용을 개관하였다. 이 정책은 주로 진로교육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단위학교와 학부모, 학생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왔다. 따라서, 우선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정부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 자원(resources)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가 단위 진로교육 정책 중에서 학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목표와 내용의 변천을 분석하였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장에서는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학교 진로교육 활동의 효과, 학교 진로교육과 부모 및 가정 요인의 관계, 그리고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종합하여 본 연구와의 차별점을 논하였다.

1. 고등학교급의 진로교육 정책 개관

가. 학교 진로교육 정책

공교육에서 진로교육은 언제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였는가?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고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21세기 초반부터 전 국민의 생애 진로개발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관계부처협동, 2006). 2001년 '제 1 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등장한 학교 진로교육은 교육 분야에 한정된 정책이 아니었으며 교육, 직업훈련, 고용, 복지, 산업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범국가적·장기적 계획의 하나로 시작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1).

그러나, 이후로도 학교 진로교육 공급은 크게 늘지 못하였다. 임언(2009)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의 진로체험 교육 참여율이 OECD 28개국 중 20위권 밖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국가에서 진로지도를 활발하게 시행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진로지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육 전담인력을 고용한 비율이 낮았으며, 책무 담당자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지연, 최동선(2005)은 단위학교가 학생에게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체계성,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지원체계는 진로상담이 가능한 진로교육 독립 공간, 전문성을 갖춘 진로교육 담당교사, 그리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로정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하지만, 학교 진로교육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통계자료로 제시하였다. 또한, 직업체험과 실천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진로교육 공급의 부족 외에도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 전반의 입시 중심 교육풍토 역시 학생의 적성과 잠재력을 강조하는 진로교육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였다(조용환 외, 2009; 한겨레, 2008.2.24.).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이 적극적으로 구현되었다. 먼저,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진로교육이 명시되었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신설되면서 '진로활동' 영역이 포함되었고, 고등학교에만 존재하던 '진로와 직업' 과목이 중학교 선택과목으로도 편성되었다(장명희, 김선태, 박윤희, 최동선, 2010).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와 맞물려 고교 다양화, 입학사정관제로의 대입 전형 개편이 추진되면서 중등학교에서 전문적인 진로·진학 지도의 필요성은 증첨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우선 공립 고등학교와 규모가 큰 학교부터 1명씩 배치하기 시작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법령 절차에 따라 '진로진학상담' 과목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발령을 받은 교사로 정의한다.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만 55세 미만 교사 중에서 선발하였고, 시·도 교육청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거쳐 '진로진학상담(2급)' 자격을 부여하였다. 진로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하고, 진로교사가 부장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7]는 진로와

7) 진로진학상담교사 직무 내용: 1. 진로진학상담부장 등으로서 학교 진로교육 총괄 /2. 진로교육 활동 기획·운영 /3.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교과 미개설 시 창체활동 중 진로활동 지도 (주당 10시간 이내) /4. 학생 진로·진학상담 (주당 평균 8

직업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진로활동 지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및 입시전형 지원, 학교 진로체험 활동 기획,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킹 등 학생 진로지도 및 학교 진로교육활동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김나라, 방재현, 정진철, 2012). 이후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전담교사'로 명칭을 바꿨고, [표 2-4]와 같이 2018년 현재 96.6%의 공립 고등학교, 93.3%의 사립 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어있다(정은진, 2018a).

[표 2-4] 진로전담교사 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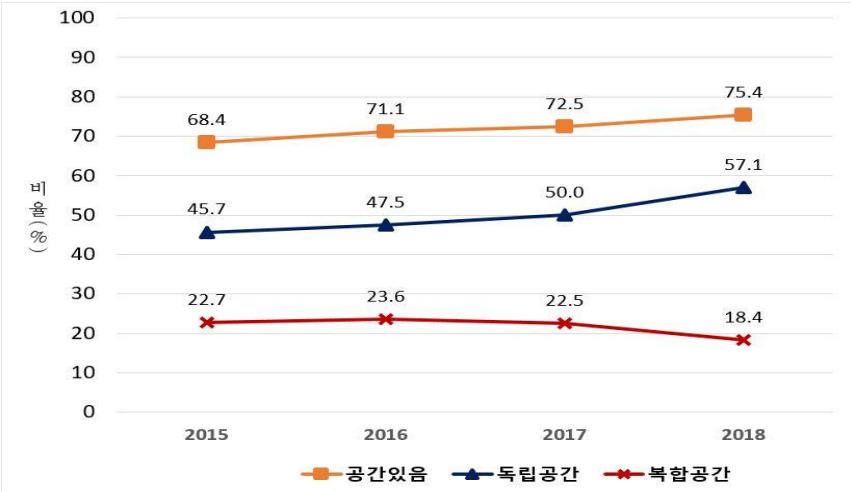
구분	고등학교						계
	일반고·자율고·특목고			특성화고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배치 인원	1,089	683	1,772	303	213	516	2,288
순회교사 수	9	3	12	6	3	9	21
배치학교 수	1,069	670	1,739	297	212	509	2,248
전체 학교 수	1,102	721	1,823	312	224	536	2,359
배치율(%)	97.0	92.9	95.4	95.2	94.6	95.0	95.3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 (2018. 4. 기준),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재인용

2011년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진로교육 전용 교실 확충이 정책과제로 추진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일명 '커리어존(Career Zone)'이라고 불렸던 학교 단위 진로교육 전용 교실은 최근에는 '진로활동실'로 불린다(광주시교육청, 2018). 진로·진학 상담, 진로 교과수업 및 진로 창체 활동, 진로동아리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진로교육 전용 공간이다. 이 전용 교실이 안정적인 진로교육을 가능하게 하여 학교 진로교육

시간 이상) /5. 창체활동 중 진로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진로 관련 에듀팟 관리 /6. 커리어 포트폴리오 지도 /7.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중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고등학교) /8. 진로직업 관련 심리검사 활용 및 컨설팅 /9. 교원과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 및 컨설팅 /10. 선취업 후진학 및 취업 지원,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특성화고)/11.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관리 /12. 교내외 진로교육 관련 각종 체험 활동 기획·운영 /13. 기타 진로교육 관련 업무(교육과학기술부, 2011a). 이후 2013년 운영지침에서 공통 직무,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로 구분되어 직무가 표시되었으나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김승보 외, 2013), 학교 실정에 맞게 다른 공간과 통합해서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고등학교 진로활동실 확보율과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다음 [그림 2-1]과 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국가통계포털)[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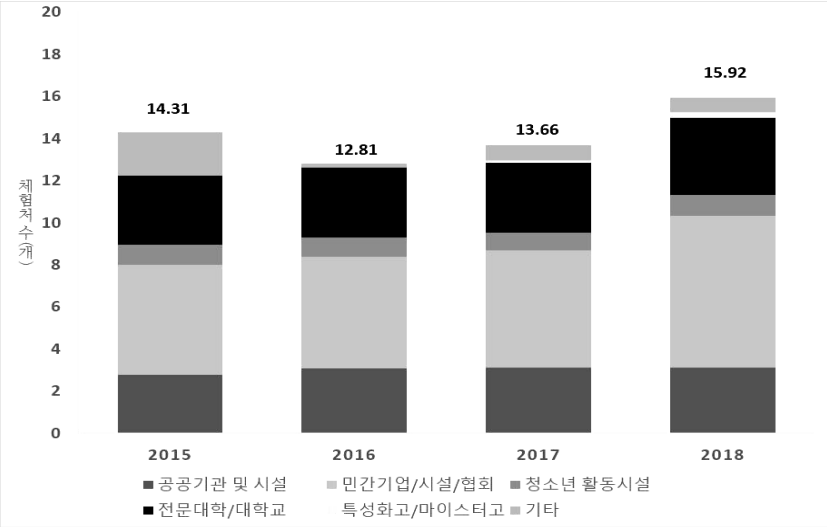
[그림 2-1] 고등학교 진로활동실 확보율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역시 진로교육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학부모의 직업에 대한 편견 등을 개선하고 자녀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대표적으로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인 '진로교육 아카데미'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주관으로 운영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이후 온라인 자료로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외에도 커리어넷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를 위한 진로정보가 꾸준히 보급되고 있다(교육부, 2016a; 교육부, 2018b).

8)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진로활동실 유형을 혼합형(교실 1.5칸), 교과교실형(교실 1칸), 상담실형(교실 0.5칸)으로 구분하였다. 혼합형은 진로상담과 교과수업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간, 교과교실형은 상담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상담실형은 상담이 가능한 소규모의 전용공간이다. 진로활동실 구축은 희망학교의 공모사업 신청, 선발하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공간을 1칸 이상 확보한 학교를 우선 지원하였다. 또한, 진로활동실 구축 후에는 진로캠프 또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중 하나를 필수로 운영하도록 하였다(광주시교육청, 2018).

2013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는 학생이 진로를 개발해나갈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동해 중학교에서 강의식 교과수업 개선과 진로교육 강화를 목표로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고, 2016년 전국에서 시행되면서 국가 전반에서 진로교육에 관심이 한층 고조되었다(김승보 외, 2013; 이지연, 김재희, 이서정, 2017). 2015년 12월에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 단계까지 진로교육의 수요자가 확대되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발달 단계 및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학습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진로체험을 제공할 책무를 규정하였다(진로교육법). 이로써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진로교육이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이지연 외, 2017).

그런데 학교 진로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간, 학교 간 진로교육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장현진 외, 2015; 한겨레, 2015.10.2.). 또한, 빈곤계층, 다문화 등 취약계층 청소년이 진로 결정에서 겪는 결손이 보고되어왔다(김경희, 박근혜, 2013; 박하나, 조영달, 박윤경, 2013; 이종범, 최동선, 오창환, 2012). 이에 2016년에 발표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초·중등 진로교육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진로체험의 양적·질적 강화, 지역·계층 간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6a). 공공기관 진로체험 제공을 의무화하였고 민간기업의 진로체험 지원을 유도하며, 체험처의 안전점검 및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학교에서 활용하는 진로체험기관 개수의 평균과 종류별 비중은 다음 [그림 2-2]와 같다(국가통계포털). 평균적으로 2016년 이후로 활용하는 진로체험기관 수가 증가하였으며, 민간기업·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2-2] 고등학교에서 활용하는 진로체험기관 수

요컨대, 진로교육 정책은 미래직업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전 국민의 생애 진로개발을 지원할 국가의 책무에 의해 도입되었고 초·중등 공교육의 활동으로써 진로교육이 강화되었다. 정부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원을 배치하였고, 진로활동실을 설치하는 등 단위학교로의 인프라 공급이 진행되었다. 또한, 직업체험의 효과성이 강조되어 교육 기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체험기관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가속되었다. 더불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2018년 전국에서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진로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한 고등학교 비율이 90%를 웃돌고 있다(정은진, 2018a). 이처럼 고교 진로교육의 환경과 인프라는 거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는 진로교육이 명실공히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로교육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진로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매일신문, 2018.9.17.). 여전히 청소년과 청년이 겪는 진로방황이 사회 문제로 보고되는 가운데(오인수 외, 2018), 현재 고교 진로교육은 진학 지도 위주여서 실효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진로교육 자원 투입(input)의 확대와 격차 해소

를 넘어 정책이 성과(outcomes)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실증적 검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윤형한 외, 2016; 정철영 외, 2015).

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 개관

진로발달이론과 관련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에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김소라, 문승태, 2017; Blustein, et al., 1991; Roe, 1957),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도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에게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안선영 외, 2012; 조용환, 2009). 이에 부모의 합리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강요하거나, 자녀의 적성·흥미보다 학업 성적을 우선시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왔다(양미진 외, 2010; 한겨레, 2008.3.2.).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 정책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함께 주목받아온 것은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관련 정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010년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초·중등 진로교육 시행계획'에서는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를 지원하려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진로지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정책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교육청 내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상담 등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단위학교에 대한 진로교육 지원방안으로 '자녀를 위한 진로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한편, 동 계획에서는 학교 진로교육 담당 인력 부족 역시 문제로 제기되었던바, 학부모, 퇴직 교원 등을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 강사로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이 시기에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대입 진학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와 불안이 사교육 팽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경향신문, 2009.4.15.; 한겨레, 2010.2.18.; MBC

뉴스, 2010.2.25.). 이에 2011년 발표된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진로정보를 공교육의 영역에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을 띈 대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대표적인 정책은 2011년부터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로교사는 학생에게 진로 교과수업, 진학·진로 상담을 할 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진행하는 업무도 담당하게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그 외에도 정책설명회, 학부모 상담주간, 학부모회 시간을 이용하고, 책자,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진로진학 관련 자료를 공급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은 '2012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서부터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되었다. 대학 서열과 직업 귀천에 대한 사회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부모가 자녀의 진로선택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 자녀 진로설계를 지원에 활용할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와 학부모가 본인의 직업 전문성과 진로지도 경험을 다른 학부모, 학생과 강의, 상담, 멘토링 등으로 나눌 수 있게 '학부모 진로코치'로 양성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이후로 학부모의 진로 인식을 개선하고, 수요에 맞는 진로정보를 제공하여 자녀 진로지도 역량을 배양하려는 여러 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졌고, 교육청·학교 연수와 상담에 온라인 자료까지 매체의 폭이 넓어졌다(교육부, 2013; 교육부, 2014; 교육부, 2016a). 2012년부터는 학부모 대상 진로소식지인 '드림레터'가 학교를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을 통해서도 드림레터와 동영상, 자료집이 활발히 보급되었다(교육부, 2013). 2014년에는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SNS, 어플리케이션, 팟캐스트를 통한 진로정보 확산이 정책화되었다(교육부, 2014). 2014년에 시작된 팟캐스트 방송 '진로레시피'와 2015년에 출시된 어플리케이션 '맘에쏙진로'는 진로교육 관련 정책 소개, 자녀와의 대화법 및 진로지도 방법 안내, 학과·직업소개, 진로 고민 상담 등의 내용을 회당 짧

은 분량으로 제작·보급하는 학부모 진로교육 콘텐츠이다(교육부, 2017; 교육부, 2018a). 최근 도입된 2016년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적 배려자 대상 맞춤형 진로교육이 주요 추진과제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주민 가정 학부모를 위한 정보가 별도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교육부, 2016a).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진로교육정책 도입 초기부터 학부모가 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였으며, 학부모에 대한 정책은 꾸준히 시행되고 있었다(김승보 외, 2013). 정책 문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전후로는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진로교육에 활용할 물·인적 자원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자녀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선입견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학교 진로교육이 양적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2014년에는 진로교육 전반의 질적 내실화가 논의되었고, 학부모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가 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2016년 발표된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4가지 정책영역, 8가지의 추진과제와 20가지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세부과제 중 하나로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를 들고 있다. 또한, 학생의 적성과 학부모의 필요,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제공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교육부, 2016a).

정부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에서 나타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학부모의 진로 인식을 개선하여 자녀 진로지도를 지원하려는 접근과 학교 진로교육의 인적 자원으로 학부모를 포함하여 정규교원 외의 인력을 활용하려는 접근이다(조희경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 진로교육 정책에서 학부모를 다룬 내용을 분류하여 다음 [표 2-5]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5]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정책 변화

시기	정책 문제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지원	학부모를 학교 진로교육에 활용
2006	- 학교의 진로교육 기능 미흡	-	• 체험학습 강화: 산업체와 협력하여 '일터 탐방 주간', '부모님 회사 탐방의 날' 운영
2010	- 진로교육 정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이해와 접근성 - 학교 진로교육 담당 인력 부족	• 교육청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 (학부모 진로상담 운영) • 진로코디네이터를 활용한 학부모 진로교육 • '자녀를 위한 진로교육 매뉴얼' 학교 보급	• 정부, 공공기관, 시도교육청부터 개방하여 학생들에게 부모 직장 탐방 기회 제공 • 학부모, 퇴직 교원 등 진로코디네이터 선발
2011	- 체험중심 진로교육 내실화 필요성 - 입학사정관제로 개편 이후 진학준비를 위한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의존 우려	• 2014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직무에 학부모 진로·진학 연수, 상담 포함) • 진로교육 선도교육청 선정과 지원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등 실시) • 학교 내 학부모 정책설명회, 상담주간, 학부모회를 활용한 진로진학자료 보급 • 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한 정보 제공 (홈페이지 개통) • 대교협과 EBS 공통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 EBS 진로교육 필요성 제고 방송 제작 • 자녀 진로교육 책자, DVD 등 자료 제작·보급	-

시기	정책 문제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지원	학부모를 학교 진로교육에 활용
2012	- 학부모의 진학, 직업 관련 진로 인식 개선 - 학부모, 기업인, 지역사회 인사를 학교 진로교육에 활용	• 교육청, 학교가 주관하는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상시 운영 • 학교 학부모회 활동과 연계한 진로교육 연수 • 학생 진로체험, 진로캠프에 학부모 공동 참여: 자녀 이해 및 직업 세계 이해 지원 • 학생·학부모 진로상담 우수 진로교사 후원	• '학부모 직장체험' 형태로 직업현장 개방 • '진로코치' 양성: 학부모, 산업체 경력자, 지역 인사, 대학생, 동문 등 활용 • 학생 진로체험 및 진로캠프 참여: 학부모의 직업, 직업관을 토대로 학생 대상 강의, 상담
2013	- 학부모의 진로교육 인식변화 및 진로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운영 확대 (4000강좌 목표) • 농어촌,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학부모 수요 맞춤형 연수 운영 • 커리어넷 활성화: 진로교육 동영상, 진로소식지(드림레터) 제공 • 진로소식지 학교로 보급 (주 1회, 학기 중)	•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확대 (5만 명 양성 목표)
2014	- 학부모 진로 인식개선 및 기존 학부모 진로교육의 확산	• 진로상담 확대: 학교 대면 상담,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 • 다양한 매체 활용 추진: 어플리케이션, 신문, SNS, 팟캐스트, 원격 연수과정 등	•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진로교육 의견수렴 • 학교 진로체험지원인력 전산 관리

시기	정책 문제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지원	학부모를 학교 진로교육에 활용
2016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 학부모 진로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 자녀발달단계 맞춤형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 • 온라인과 가정통신문으로 보급되는 진로소식지(드림레터), 진로정보앱(맘에쏙진로), 팟캐스트 방송(진로레시피) 등 매체 다양화 •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부모용 진로정보 신설 • 북한 이탈 주민 학부모 대상 맞춤형 진로교육	•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풀 확대 • 진로코치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보급
2017	- 수요자 맞춤형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 학부모,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학생 대상 전문가 상담풀 운영 • '찾아가는 장애 학생 학부모 진로·직업 연수과정' 운영	•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기관 진로 체험처 제공 유도 (학부모 진로코치 등 봉사활동 시간 인정)
2018	- 개인 맞춤형 학교 진로교육 운영 기반 확충 및 진로교육역량 강화	• 학부모용 진로정보 온·오프라인 콘텐츠 계속 보급 • 초등 진로교사와 담임교사 대상 연수 (학부모 연수, 학부모 진로상담 전문성 강화)	-
2019	- 학생, 학부모, 교원 구성원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진로교육 역량 강화와 진로 인식 제고	• 시도교육청 자율 진로교육 사업 운영 지원 (학부모, 학생, 교원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관련 사업)	-

2. 관련 선행연구 분석

학교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는 우선 진로교육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구(이지연, 2014; 정철영 외, 2015; 정철영 외, 2018 등)와 진로교육 정책 집행 양상을 질적으로 들여다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박나실, 2017; 안여진, 2019; 이인수, 2017)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으로 현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양적인 인프라 확충에서 나아가 질적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집행 양상에서의 모순되고 불분명한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기서는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 및 학부모 진로교육 병행에 따른 차별적 효과와 관련이 높은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에 ㈎ 학교 진로교육 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 ㈏ 학교 진로교육과 학부모의 관계 ㈐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로 한정하여 고찰하였고 각 항목과 본 연구의 접점을 논의하였다.

가. 학교 진로교육 활동의 효과

학교 진로교육 활동의 효과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은 진로교육 성과 변인을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근본적인 성과로 진로성숙과 같은 진로발달 변인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김경식, 이현철, 2012; 김기헌 외, 2014; 김효선, 양승호, 2012; 주현준, 이쌍철, 2014; 원지영, 2019; McWhirter, Crothers, & Rasheed, 2000 등). 이와 함께 학업성취(김기헌 외, 2014; 어윤경, 변정현, 2013; Evans & Burck, 1992), 학습 동기 및 태도(최윤정, 김지은, 2012; 장현진 외, 2016)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수행되었다. 나아가, 고교 졸업률(Dougherty, 2016), 대학 진학(Cellini, 2006; DeLuca, Plank, & Estacion, 2006), 학과 만족(이상준, 2011; 주현준, 이쌍철, 2014; 이호준 외, 2019), 대학 적응(박소영 외, 2014), 학업성취(최정윤, 신혜숙, 2016), 그리고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박윤희, 2013; Bishop & Mane,

2004; Dougherty, 2016)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본 연구도 있었다.

진로교육을 받은 학생에게는 교육목표에 명시된 진로개발역량 외에도 학습 태도와 행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윤형한 외, 2016). 또한, 진로교육의 일차적 목표가 희망 분야로의 진출이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의 진로교육 성과는 진학 혹은 입직 이후의 경력 성공으로 측정할 수 있다(정철영 외, 2019). 다만, 본 연구에서 주목한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는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범위를 더욱 좁혀 검토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⑴ 진로교육 경험의 효과성 연구, ⑵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 ⑶ 학생의 가구 특성에 따른 진로교육의 차별적 효과에 관한 연구 순서로 개관하였다.

먼저, 학교 진로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서 진로성숙이 높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되고 있었다(김기헌 외, 2014; 원지영, 2019; 주현준, 이쌍철, 2014). 김기헌 외(2014)는 진로체험에 참여한 학생과 미참여 학생을 CEM(Coarsened Exact Matching)으로 매칭한 후 진로체험이 중・고생의 진로성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체험이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효과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게 나타났으며,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이 모두 유의하였다. 주현준, 이쌍철(2014)은 진로교육 활동과 동아리 활동 참여가 진로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중학교 때 참여한 진로교육활동과 고교 시절 참여한 진로교육활동의 개수는 고등학생의 진로 계획성 및 진로 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원지영(2019)의 연구에서는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 진학 이후까지 진로성숙이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진로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대학생 때 진로성숙이 정체되거나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 경험의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이 존재함을 밝혔다.

전술한 연구들은 학생의 진로교육 경험 여부 혹은 학교 진로교육에 활발히 참여한 정도가 진로교육 성과를 설명하는지 보았다. 그런데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시행하는 현시점에서는 교육의 질을 논의할

필요성이 증가해왔다(정철영 외, 2015). 이에 학계에서도 학생의 진로교육 참여 외에도 진로교육 만족도가 진로교육 성과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었다(김경식, 이현철, 2012; 김소라, 황영준, 2016; 김재희, 2019; 김지효, 2018; 어윤경, 2008; 장현진, 2018; 정미나, 노자은, 2017 등).

김경식, 이현철(2012)과 김소라, 황영준(2016)은 학교 진로지도에 만족하고 도움이 된다고 느낄수록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어윤경(2008)은 진로교육 활동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진로성숙 초기값이 컸고 변화폭도 빠르게 성숙하였으며, 감소하는 시점에서도 감소 폭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김지효(2018)는 진로상담, 체험강연, 진로정보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만족도가 진학준비도와 진로성숙도를 매개하는 경로를 통해 희망전공 입학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중학생 대상 연구였지만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2013)은 진로교육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와 같은 진로발달 변인 간 관계를 진로교육 만족도가 매개하는 효과를 검증하였고, 장현진(2018)은 진로교육 만족도가 진로개발역량, 학습 동기,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밝혔다.

소결하면, 선행연구는 학교 진로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이 높다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여 진로교육 확대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또한, 진로교육 만족도가 진로성숙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연구는, 진로교육 경험 그 자체보다 만족스러운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반증하였다. 이는 학생의 특성과 수요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면밀한 정책 설계와 차별적인 운영을 제언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 학교 진로교육과 부모 및 가정의 관계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와 가정배경의 영향은 학교 진로교육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거나(유정이 외, 2015; 이인수, 2017; 최원호, 우규환, 박현주, 2004),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김재희, 2019; 이상

준, 2011 등). 우선, 우리나라 학교 교육 내에서 고등학생의 진로 탐색 과정과 학교 진로교육의 운영 실태 및 문제를 면담과 사례 연구로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유정이 외(2015)는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학생의 가정배경과 학부모의 개입이 진로교사의 역할수행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가정 경제 상황, 부모와의 가치관 갈등으로 긴 안목으로 진로를 탐색하지 못하였으며, 진로교사 역시 학부모의 일방적이고 진학 위주인 요구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인수(2017)는 일반고 사례 연구를 통해 대학입시 위주 교육과 진로교육의 목표가 공존하고 있는 패러독스에 관하여 고찰하였는데, 진학 성과를 중시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교가 대학입시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로교육보다 입시 위주 교육을 우선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원호 외(2004)는 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고교 과학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중에 다른 교사, 가족들의 부정적 시각을 맞닥뜨렸음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동아리를 통해 능동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었으나, 성적 하락과 활동이 구체적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모의 우려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위 연구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전통적 직업관과 진학 중심 가치관이 학교 진로교육 운영과 학생이 학교에서의 진로 탐색 경험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주었다. 이어서,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가 가구소득, 양육 태도와 같은 가정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었다(김재희, 2019; 이상준, 2011; 이한나 외, 2009). 먼저, 김재희(2019)는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다른 양상을 확인하였다.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학교 진로교육 활동 만족도가 높았으나, 진로성숙도는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진로성숙을 유의하게 높이는 진로교육의 종류가 차이가 있었다. 유사한 결과로 이상준(2011)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평균 이하인 집단에서 학교 진로교육이 희망과 실제 진학한 전공 일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촉진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 이한나 외(2009)는 부모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깊은 학생에게 진로교육활동 경험의 효과가 더 크고, 반대로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학생은 같은 진로 관련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

전술하였듯, 학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자녀 진로지도를 통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김소라, 문승태, 2017 등),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 역시 조절할 수 있다(이한나 외, 2009). 이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교육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진로정보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교육부, 2016a; 교육부, 2018a). 그러나, 학부모 진로교육 정책은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정책과 비교하면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크게 ⑴ 학부모 진로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밝힌 연구(유정이, 황재원, 박지아, 2009; 조희경, 장석민, 이용순, 2013)와 ⑵ 학부모 진로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김소라, 문승태, 2017; 장현진 외, 2016)로 구분할 수 있다.

유정이 외(2009)는 학부모가 자녀 진로지도에서 겪는 어려움을 탐색하여 학부모 진로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단초를 제공하였다. 자녀 진로지도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17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경험하는 중・고생 자녀 진로지도 경험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끊임없는 고민과 불안'을 핵심 범주로 도출하였다.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발달을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나, 명확한 역할은 정립되지 않았다. 또한, 서구의 부모에 비해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동일시하거나 가족 중심의 성취를 지향한다는 것이 선행연구에 비추어 일관되게 나타났다. 조희경 외(2013)는 학부모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기관과 학부모 대상 설문을 통해 현황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학부모들은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을 선호하고, 내용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등 전통적인 직업관으로 자녀의 진로선택과 충돌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학부모 진로교육에 기회를 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았고, 참여율도 낮은 편이었으며, 가사 일과 직장 업무가 방해요인이었다. 또한,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부실한 내용과 허술한 진행을 낮은 만족의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교에서 시행하는 경우 평균 참석 인원이 약 85명이었으나, 공공·민간 단체에서의 교육에는 평균 48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었다. 학부모 진로교육의 문제점으로 낮은 참여율, 표준화된 프로그램 부재, 홍보 부족, 짧은 교육시간 순으로 제기되어, 전문화된 교육내용 및 메뉴얼, 우수강사 인력 확보와 예산지원을 요구하였다.

조희경 외(2013)의 연구는 학부모 진로교육 정책의 현황과 함께 공급자인 운영 기관과 학교 진로교사, 수요자인 학부모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부모 진로교육의 실태와 문제, 개선방안을 폭넓게 조사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후에는 학부모 진로교육 참여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려는 연구가 있었으며, 부모가 학교 진로교육에 관여할 때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소라, 문승태, 2017; 장현진 외, 2016).

먼저, 장현진 외(2016)는 학교의 진로상담과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학부모에게서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이 더 높다고 밝혔다. 또한, 드림레터, 맘에쏙진로 등 진로교육 자료를 활용한 학부모의 자녀 진로개발역량이 더 높았다. 즉,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에 참여하고, 진로교육 자료를 활용한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학부모의 자녀 진로개발역량은 모든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학부모의 자녀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도가 는 학교 소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학부모 진로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부모에게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이 뒤떨어지지 않게끔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김소라, 문승태(2017)의 연구에서도 학부모 진로교육 참여의 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대상 진로연수나 특강을 수강한 부모에게서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부모가 담임교사와 학생의 진로와 관련해서 상담

하고, 만족할 때 진로개발역량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부모 진로교육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하지 못해 순수한 효과로 단정을 짓기 어려우며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학부모 진로교육 참여자에게 자녀의 진로를 지도함에 있어 긍정적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앞선 연구를 종합하면, 부모-자녀 간 진로 가치관 차이와 갈등은 학생에게 현실적 진로장벽일 뿐 아니라(양미진 외, 2010), 부모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유정이 외, 2009). 이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제공되고 있었으나, 낮은 참여율에 홍보도 저조하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었다(조희경 외, 2013).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학부모 진로교육에 참여한 부모에게서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김소라, 문승태, 2017; 장현진 외, 2016). 따라서, 학교가 학부모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시 학생의 진로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라. 선행연구 종합 논의

앞서 학생의 진로교육 경험의 효과, 학교 진로교육과 학부모의 관계, 학부모 진로교육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그리고 효과를 논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학교 진로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 나타나는 긍정적 진로발달 지표는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의미할 수 있으나(주현준, 이쌍철, 2014), 교육부의 진로교육 정책 시행에 따라 모든 학생이 같은 진로교육을 경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남수정, 2011; 이상준, 2011; 백선희, 심우정, 2018), 정책 효과로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교육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물적・인적 자원을 관심변수로 활용하여 정책 시행이 고등학생에게 진로교육 성과로 발현되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학교 진로교육은 학생의 가정 특성에 따라 효과가 조절되며, 학부모의 영향으로 학교 진로교육이 촉진되거나 저해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 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학부모의 영향력이 검증되어왔기에,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을 시행할 때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이 가정에서 진로지지를 충분히 받고 진로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노력을 병행했을 때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가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들여다본 연구는 그간 부재한 상황이었다.

셋째,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는 학부모 진로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거나, 진로교육 운영 실태와 문제, 개선방안을 밝히는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진로교육 정책은 학생에게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접근이 병행되었을 때 효과가 촉진될 수 있겠으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 관련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며, 학생에 대한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병행할 때 촉진되지도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을 관심변수로 활용하여[9], 학교가 학부모를 고려하여 진로교육을 운영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는, 학생의 진로발달은 결국 부모와 가정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는 결과에서 나아가(남수정, 2011; 황여정, 2007), 학교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밝혀 학교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9) 이는 상대적으로 학교의 진로교육 희망 및 의지에 따라 좌우되기에(서울시교육청, 2014)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변수를 활용할 때보다 부모 특성으로 인한 편의(bias)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제 3 절 이론적 모형

앞서 이론적 배경의 1절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인 진로개발역량의 개념과 하위 요인을 설명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논하였다. 2절에서는 국가 진로교육 정책의 구성을 고등학교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와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진로발달이론으로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개관하였다.

1. 사회인지 진로이론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진로발달이론 중 환경·맥락의 영향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설명하는 이론 중에는 Lent, Brown, & Hackett(1994)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이 있다(Leung, 2008). 청소년이 진로 결정 효능감을 느끼는 데 부모의 지지 또는 부모와의 갈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다수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기초하여 부모의 영향력을 밝히는 모형을 설정해왔다(김수정, 장경아, 이지연, 2016; 양미진 외, 2010; Byars-Winston & Fouad, 2008), Ginevra, Nota, & Ferrari, 2015; Gushue & Whitson, 2006; Sawitri, Creed, & Zimmer-Gembeck, 2014 등). 아래에서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모형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에 비추어 학생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 전반에 긍·부정 영향을 미치는 근접 맥락 변인으로 부모의 영향이 이론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학업과 진로에서의 흥미 형성, 진로선택,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목표와 같은 개인 변인과 의미 있는 타자와 같은 환경 변인, 그 외 부가적인 변인이 상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체계

화하였다. 흥미 발달모형(model of interest development), 선택모형(model of career choice), 수행모형(model of performance), 이렇게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모형은 서로 맞물려있고, 사회인지 메커니즘을 골자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이 이론은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의 일반적인 논의를 진로발달의 영역으로 적용, 확장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결과 기대(outcome expectations), 그리고 목표(goal representation)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핵심으로 전제하는 Bandura(1986)의 관점을 수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타 진로이론에서 진로 행동을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산물(by-product)이자 결과로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개인 내적 속성, 환경, 그리고 행동이 3요소로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행동 역시 상황의 변화를 일으켜, 개인의 생각과 이어지는 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가정한다(Lent, et al., 1994: p.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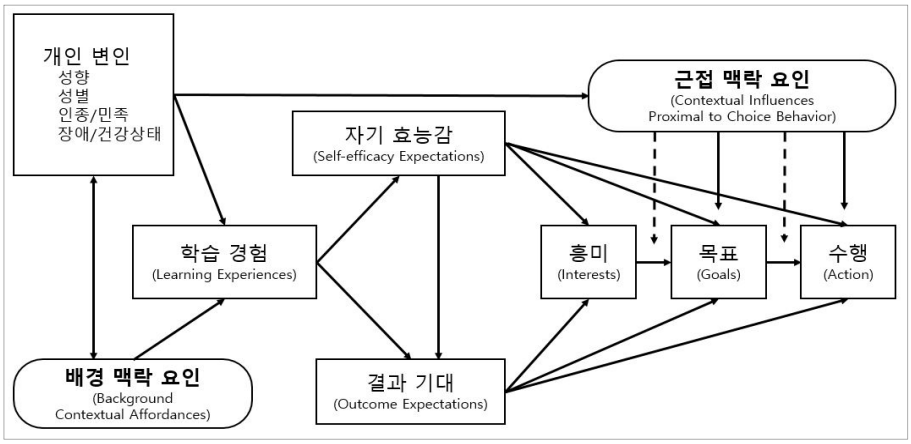
세 가지 모형 중 흥미 발달모형에서는 개인이 자기효능감,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흥미를 형성하고, 흥미가 진로 관련 활동 참여, 실천, 기술 획득으로 이어지는 가설을 설명한다. 이때 다양한 직업 활동에 노출될 뿐 아니라 선택한 활동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달성하면서 흥미가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지속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모델링, 중요한 타자로부터의 피드백이 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덧붙여, 이들은 흥미 형성 과정이 주로 후기 청소년기에서 이른 성년기에 일어나지만, 이후에도 실직, 사고, 출산, 기술발전 등 개인 생애·사회 구조적 맥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Lent, et al., 1994: p. 88~89).

수행모형은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수행 목표와 성과 수준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 모형에서는 사전 수행 성과 등으로 측정되는 능력 변인이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 그리고 이후 수행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수행 목표와 수행 행동 사이에는 문제해결력, 분석력, 효과적인 학습법과 같은 능력이 요구되며, 자기효능감과 수행 행

동 간의 관계에도 다양한 요인이 관여할 수 있다(Lent, et al., 1994: p. 98~100).

선택모형은 흥미 발달모형을 바탕으로 흥미가 진로목표와 진로선택 행위로 이어지고 선택으로 인해 겪는 경험과 성취가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다시 영향을 주어 선택이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진로목표와 선택 행위에는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도 있으며, 특히 자기효능감은 수행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 모형에서 특기할 점은, 흥미, 목표, 선택 행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s)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Lent, et al., 1994: p. 93~96).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에 대한 부모, 학교 교육과 같은 환경·맥락 요인의 영향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전술한 세 모형 중 선택모형을 들여다보았다. Lent, et al.(2000)에서는 선택모형을 모형화하여 아래 [그림 2-3]과 같이 나타냈다.



[그림 2-3] 사회인지 진로이론 선택 모형(Lent, et al., 2000)

맥락적 요인은 배경맥락(distal, background contextual) 변인과 근접맥락(proximal, contextual) 변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배경맥락 변인에는 기술 습득 기회, 롤모델(role-model) 유무 등이 해당하며, 학습 경험을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접맥락 변인은 개인의 흥미 형성,

목표 설정, 수행 단계 전반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다(공윤정, 2005; 김영혜, 안현의, 2012). 이러한 요인들은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 목표를 갖고 수행해나가는 과정 전반을 중재하고 조절하는 효과와 함께 진로선택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도 줄 수 있다(Lent, Brown, & Hackett, 2000).

근접맥락 변인의 작용은 맥락의 중요성을 개인 내적인 요소에 반대되는 측면으로만 강조한 것에서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이 진로지지(Career Supports)로 작용하면 개인이 흥미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불충분한 지지 또는 진로장벽(Career Barriers)으로 기능한다면 진로 흥미 발달과 진로선택 일련의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Lent, et al., 2000). 이러한 진로장벽의 한 예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부모와 같은 의미 있는 타자의 희망이 진로발달에 지배적 영향을 끼친다(Lent, et al., 2000; Sawitri, et al., 2014; Sawitri & Creed, 2017). 우리나라 역시 집단주의 가족 문화권에 속하여 부모가 자녀의 진로선택에 관여하는 주요한 근접맥락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공윤정, 2005; 김영혜, 2013).

이상을 종합하면,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이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와 같은 개인 변인과 환경·맥락 변인 그리고 행동 변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체계화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해보면 우선, 학교 진로교육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와 전문적인 진로정보(career information)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을 촉진하여 정책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의 영향이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인 학생의 진로발달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에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이 병행되었을 때의 진로교육 정책의 차별적 효과까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제 3 장 연구 방법

연구의 목적인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으로 인한 차별적 효과를 밝히기에 앞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개관하였다. 본 연구는 2장에서 고등학생의 진로개발과 부모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진로교육정책 관련 연구에서도 정책 집행을 위하여 학부모의 인식 전환과 학부모 진로교육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해왔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먼저,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모형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계량분석에서 활용한 자료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며, 분석대상의 범위를 밝혔다. 이어서, 회귀분석 식과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에 관한 설명을 서술하였다.

제 1 절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가 해결하려는 연구문제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다.

- 학교가 학부모에게도 진로교육을 병행했을 때, 학교 진로교육 정책 시행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가?
- 학생에게 나타나는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는 학교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운영했을 때 더 크게 나타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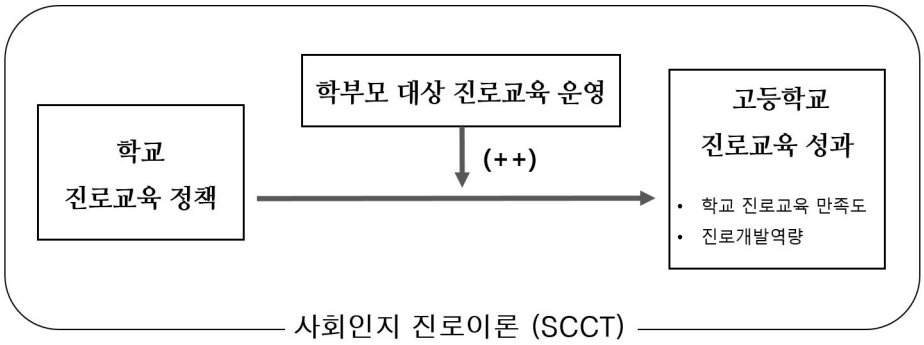
이러한 질문은 진로교육이란 본래 일반 교과교육과 달리 부모의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던 교육 영역이라는 데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학교 진로교육 정책을 오랜 기간 시행해왔음에도 진로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제의 원인이 청소년의 진

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간과한 채 학교에 공급만 늘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착안한 것이다. 따라서, 진로발달에 환경·맥락적 요인으로 부모가 작용하여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를 조절할 만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 따라 추론하였다. 첫 번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의 분석 틀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전술하였듯,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학업 및 직업 흥미 형성, 진로선택,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개인, 환경, 행동 변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으며, 흥미 발달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 발달모형에서 학생은 다양한 직업 관련 활동을 맞닥뜨리고, 수행하며,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흥미를 찾아가게 된다. 또한, 선택모형에서 배경맥락 변인은 학생이 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형성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Lent, et al., 1994). 이때 학교 진로교육의 진로체험을 비롯한 교육활동이 이러한 환경과 배경맥락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학생은 학교에서 교과·비교과 활동, 상담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직·간접 체험 기회를 통해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학습 경험을 통해 해당 직업에 비추어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진로선택과 준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와 가정환경 역시 학생에게 유의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에 더하여 더 큰 역할로도 기능할 수 있다. 진로선택 과정에서는 근접맥락 변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때 부모의 지지는 진로지지(Career Supports)의 하나로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과정을 지원할 수 있으나, 부모의 무관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 및 갈등은 진로장벽(Career Barriers)으로 기능하여 학생의 진로선택 및 준비 행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Lent, et al., 2000). 이에, 진로교육에서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제공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의 진로지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학교 진로교

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 이론적 분석 틀

진로교육 정책에는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자 적성·흥미에 기초한 자녀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학·진로 정보와 의사소통 방법 등을 알려주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2014; 교육부, 2017; 교육부, 2018b). 이에,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시행할 때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병행된다면 근접맥락 변인으로 부모의 영향을 조절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가 촉진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진로교육 성과는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 진로교육 정책으로 인한 학교의 진로교육 물적·인적 자원은 학생에게 나타나는 진로교육 성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 학교 진로교육의 물적·인적 자원이 진로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병행한 학교에서 더 커지는 차별적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제 2 절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별로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1에서는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계획문서를 종합하여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의 개념과 교육내용, 운영 절차 그리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3의 회귀분석에서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진로교육 현황조사' 2016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 제6조에 근거하여 매년 진로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진로교육 운영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수집된 횡단면 자료이다. 학생, 학부모,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조사 영역을 진로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로 구분되어있다. 조사 내용으로 초·중등 학교의 진로교육 환경 및 여건, 진로교육 운영 및 참여 실태, 그리고 진로교육 만족도를 포함한 진로교육 성과와 요구사항을 폭넓게 담고 있다(장현진 외, 2016).

이 자료는 우선,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물적·인적 자원과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개발역량 등 진로교육 성과 지표를 상세히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진로교육 정책에 따라 투입한 자원과 그 성과의 관계를 탐구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특히, 진로교육의 성과로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를 활용해왔으나, 본 자료는 학교 진로교육의 성취기준에 비추어 최근 개발된 문항으로 진로개발역량을 측정했기 때문에 진로교육정책의 성과로서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이 시행된 2016년 이후의 데이터로 학교 진로교육의 가장 최근 실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작금의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 유용하다. 학교 진로교육이 양적·질적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자료로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를 진단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정책의 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한 변인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시행 현황을 조사한 국내 유일한 자료이다. 따라서, 부모 및 가정 변인이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조절하는 것에서 넘어서 학교가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할 때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여 공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은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한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학생 수는 총 20,159명이다. 또한, 안정적인 분석을 위하여 응답 이상치를 제외하였으며, 결측값이 있는 사례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 listwise deletion 후 분석하였다.

제 3 절 분석 방법

연구문제 2, 3에서 학교 진로교육 정책 집행의 효과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에 따른 정책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Model; 이하 OLS)을 활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모형의 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y_{it} = \beta_0 + \beta_1 X_{it} + \beta_2 Y_{it} + Z_t + \epsilon_{it} \quad \text{<식 1>}$$

위 <식 1>에서 하 첨자 i는 학생, t는 연도를 뜻한다. 좌변의 y_{it}는 종속변수로 고등학생이 응답한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을 의미한다. 우변에는 관심변수인 학교 진로교육 정책 변수와 함께 학생 및 학교특성, 그리고 연도 더미를 투입하였다. X_{it}는 진로교육 정책에서 다룬 학교 진로교육 자원 변수로 각 분석에 따라 학교의 진로체험기관 수, 학교 내 진로교사 경력, 학교의 진로교육 전용 공간 활용,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 변수를 의미한다. 이 항에서 추정하는 계수 β_1의 통계적 유의성을 바탕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물적·인적 자원이 진로교

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Y_{it}는 각 모형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학생의 개인 특성과 학교특성이며 학생의 성별, 학습 태도,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설립유형, 학교 규모, 학교 소재 지역과 같은 학교특성을 포함하여 통제변수 전반을 가리킨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운영함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가 조절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3에서는 <식 1>을 바탕으로 한 OLS 분석에 학교에서 활용하는 진로교육 정책 자원 변수와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 여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는 학교 수준의 정책 변수로 학생 수준의 진로교육 성과가 학교 안에 종속되어 있어 독립성 가정이 지켜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자료는 3개년도의 데이터를 풀링(pooling)하였으나 학교를 추적한 데이터가 아니어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같은 패널모형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학교 내 개체 간 상관관계(intraclass correlation)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10]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군집 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다(김은경, 이선화, 2009; 이전이, 김용한, 2018). N값이 충분할 때는 다층모형(multi level model) 대신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를 활용한 OLS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수용한 결과이다(Andersen & Thomsen, 2011, p. 38; Primo, Jacobsmeier, & Milyo, 2007). 따라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10)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다룬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활용한 분석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김효선, 양승호, 2012; 박미란, 이지연, 2010; 어윤경, 2008 등). 이에 연구자는 HLM의 기초모형으로써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도출하였고, 두 종속변수에 대한 모형 모두 5% 내외여서 학교로 인한 분산 차이가 존재하지만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refe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LM 대신 같은 학교별 개체를 묶어서 표준오차값을 도출하는 방법(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이 클러스터의 N값이 클 때는 다층모형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선호된다는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Andersen & Thomsen, 2011; Primo, Jacobsmeier, & Milyo, 2007).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적용하여 강건한 표준오차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OLS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매년 전국을 모집단으로 표집하여 설문한 3개년의 자료를 쌓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합동횡단면데이터(pooled cross-sectional data)이며, 학교가 식별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패널데이터는 아니지만, 횡단면 자료와 달리 다년도 코호트를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odestà, 2002, p. 8, 28). 또한, 연도 더미를 투입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였고, 과대추정을 막고자 하였다. 연구의 모든 계량분석은 STATA 13.0으로 수행하였다.

제 4 절 주요 변수 구성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활용한 변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종속변수는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이다(장현진, 2016).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을 질문한 5점 척도 문항이다. 진로개발역량은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수준을 토대로 '자기 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 탐색', '진로설계와 준비'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21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11].

다음으로 진로교육 정책으로 투입된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자원으로는 '교내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지도 경력', '학교에서 진로교육에 활용하는 진로체험기관 수', 그리고 '진로교육 전용 공간'을 설정하였다. 이 변수들은 각각 정부의 진로교육 정책 시행으로 인해 학교에 확대 배치되고 있는 주요 인적·물적 자원을 나타낸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교육부; 2016a; 문진, 소경희, 2016; 장현진, 2015).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정책에 나타난 진로교육은 크게 교과·비교과 수업 활동, 심리검사와 상담, 그리고 진로체험으로 구분된다(안여진, 2019). 이 중 진로 교과수업과

11) 분석에 활용된 문항을 [부록 2]로 제시하였다.

진로상담은 진로전담교사의 업무이기에(교육과학기술부, 2011a), 진로교사의 전문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체험은 확보한 체험기관 수가 많을 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험처 확보는 정책의 주요 과제이다(교육부, 2016a). 진로교육 전용 공간인 진로활동실은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활동, 진로강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을 위한 주요한 환경[12]이다(광주시교육청, 2019; 교육과학기술부, 2011b).

구체적인 변수 코딩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전담교사의 경력은 학교의 진로전담교사로서 처음 배치된 이후의 연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치된 첫해를 1년 차로 계산하였다. 진로체험기관 수는 학교가 학생 진로교육에 활용한다고 보고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시설・협회, 청소년 활동시설, 전문대학・대학교, 기타의 수를 합산하여 활용하였다[13]. 진로교육 전용 공간은 진로활동실과 같이 진로교육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별도로 있는 학교, 다른 교육 기능과 겸하는 공간으로 설치한 학교, 공간이 따로 없는 학교의 범주를 나타내는 질적 변수이며 더미 코딩

12) 진로교육정책은 범위가 넓고,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육활동 역시 다양하기에 이 세 변수로 정책 전체를 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예를 들면 학교 내 진로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내에서의 진로 관련 활동, 교과 수업 내에서의 진로 관련 활동 역시 정책에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로 고등학교에서 행해지는 진로교육 전반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확대 해석의 오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진로체험기관'과 '진로전담교사' 그리고 '진로활동 공간'은 ⑴ 학교의 진로교육을 목적으로 투입된 물적・인적 자원이라는 점(문진, 소경희, 2016) ⑵ 해당 변인을 정책 전체로 확대하지 않고 그 자체로 효과를 논한다는 점 ⑶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다른 자원들의 효과를 조절하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고교 진로교육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자는 모형을 설정하면서 진로교육 정책 문서와 분석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를 종합 검토하여 정책 집행을 대리하는 변수로 다양한 물・인적 자원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진로교육에 소요하는 예산, 학교 내 진로교육 부서 교사 수, 지원 전문인력 수와 같은 변인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자료로는 교내 전체 학생 수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상술한 변인들을 학생 1인당으로 변환할 수 없었기에 최종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세 변수에 중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며, 추후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13) 2016년 이후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고등학교가 100%였고, 본 연구에서는 진로체험기관을 활용하는 여부가 아니라 많이 활용하는 것의 효과에 주목하였기에 활용한 진로체험기관 수를 0으로 응답한 학교(7.2%)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하였다. 연구의 관심변수이자 조절변수인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은 응답 시점 기준으로 지난해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인 학부모 진로아카데미[14]를 실시한 횟수 문항을 시행 여부와 시행 횟수로 코딩하였다.

연구 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인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을 통제하고자 모형에 투입하였다(김두환, 김지혜, 2011; 김애희, 윤종희, 김리진, 2010; 김효정, 이길재, 이정미, 2013; 장현진 외, 2015). 마찬가지로 진로개발역량 및 청소년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변인으로 데이터에서 활용 가능한 부모와의 진로 대화, 학습 태도 등을 통제하였다(김효선, 양승호, 2012; 이정민, 정혜원, 2016; 장현진 외, 2015; 장현진, 2018; 장현진, 2019).

학생특성으로 성별은 여학생을 1로 더미코딩 하였으며, 학습 태도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질문한 5문항의 5점 척도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학생 진로발달에 작용하는 부모 요인으로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빈도와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을 모형에 투입하였다(김소라, 문승태, 2017). 부모와 진로 관련 대화빈도 문항은 '두 달에 1회 이하',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3회 정도', '매일'로 구분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5점 척도로 활용하였다(김소라, 문승태, 2017; 장현진, 2019).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교육 연한으로 변경하였으며, 고등학생 대상 분석이기에 '중학생'을 응답한 사례(0.09%)와 '기타・모르겠음'을 응답한 사례는(6.05%) 결측 처리하였다. 학교특성 중에서 학교 유형인 국・공립학교를 1로 더미 코딩하였으며, 학교 규모를 통제하고자 설문 학년의 학급 수 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도서벽지의 질적 범주로 구분하여 더미 코딩

14)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교육 현황조사 자료에는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코치 연수를 진행했는지의 변수도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진로코치는 앞선 2장의 정책 개관에 비추어 학부모가 학교 진로교육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성격이 강해 대리변수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진로아카데미 참여 인원도 변수가 있었는데, 학부모 참여 인원은 데이터의 한계로 학교 당 학생 수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는 학부모의 진로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 진로지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으로, 자녀와의 소통, 자녀의 적성 이해, 직업 세계 변화, 진로설계와 포트폴리오 작성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정은진, 2018a). 자세한 설명은 4-1에서 후술하겠다.

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여 [표 3-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1] 주요 변수 구성 및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 변수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활동 전반 만족도 문항 (5점 척도)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관련 21문항 평균 (5점 척도) (자아이해와 사회성,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
독립 변수	학교 진로체험 기관 수	학교에서 진로교육에 활용하는 진로체험 기관 수
	학교 진로교육 전용 공간	학교의 진로교육 전용 공간 유무 및 형태 독립 공간, 복합 공간, 공간 없음 (참조: 공간 없음)
	학교 진로전담교사경력	학교의 진로전담교사가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한 햇수(년)
조절 변수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작년 학교에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1), 미운영(=0)
학생 특성	성별	여학생(=1), 남학생(=0)
	학습 태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태도 관련 5문항 평균 (5점 척도)
	부모와 진로 관련 대화빈도	부모와 학교생활, 학업, 진로 관련 대화빈도 (5점 척도)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 연한 고교(12), 2~3년제대(14.5), 4년제대(16), 석사·박사(20)
학교 특성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1), 사립(=0)
	학교 규모	2학년 학급 수
	학교 소재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도서벽지 (참조: 대도시)

제 4 장 연구 결과

앞서 3장에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가설과 분석 틀, 활용한 데이터와 분석대상을 살펴보았으며, 회귀분석 식과 주요 변수 구성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4장에서는 연구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가 학교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병행할 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으로 시행된 여러 사업 중에서 학교가 운영하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에 주목하였다. 먼저, 학부모 대상 진로연수인 '학부모 진로아카데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진로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에 배치된 진로교육 인적·물적 자원인 진로교사의 경력, 진로체험기관 수, 진로교육 전용 공간, 그리고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이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병행한 학교에서 학교 진로교육 정책 자원의 효과가 조절되는지 확인하였다.

제 1 절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현황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이 무엇이며,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논함에 있어 주목할만한 것인가? 본 연구는 이에 답하기 위하여 계량분석에 앞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학부모 진로교육 참여 활동이자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선정한 진로교육 강연(진로아카데미)의 추진 목적과 내용, 운영 절차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의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 현황과 지역 간, 학교 간 차이를 들여다보았다.

1.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하였듯이 진로교육 정책에서는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인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는 2011년부터 교육부 정책으로 등장하여,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1b; 조희경 외, 2013), 다수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는 학부모에게 자녀 진로지도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연수프로그램이다[15]. 이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 교육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학부모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 2015). 이는 학부모가 학교 진로교육에 참여하는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 중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다(정은진, 2018a).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는 교육청, 지역 진로교육센터 또는 단위학교에서 주관한다. 교육은 학교의 진로전담교사, 커리어코치 또는 외부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자녀의 특성 이해, 직업 세계 변화 및 진로정보 탐색 안내, 전공 계열선택, 자녀와의 소통, 진로 및 자기주도학습 지도 방법, 교육과정과 입시전형 이해와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등 진학 정보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것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교육청별 공통 내용을 포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4-1]와 같다. 최소 시간과 참석 인원을 두었고, 학교별 운영 시기와 내용은 학생의 발달 단계, 학교・학부모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하였다(경상북도교육청, 2013; 서울시교육청, 2012; 인천시교육청, 2013; 전라남도교육청, 2014).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학교의 진로아카데미는 효과적으로 시행했을 시 학부모의 진로지도를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15)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는 대입 진학 설명회, 고입 진학 설명회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물론,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교육내용에 입시정책 설명이 포함될 수 있으나, 공문서상 명칭이 명확히 구분되며, 초빙 강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자녀교육 방법, 직업 변화 전반에 대한 이해, 부모 자신의 주체적인 삶에 관한 것까지 진로아카데미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서울시교육청, 2012).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1]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교육내용

자녀 이해	직업 세계 이해	학교 진로교육 이해	진학 및 입시
• 자녀 성격 이해 • 자녀와의 소통 • 자녀 진로설계 지원방법 • 자기주도학습 지원방법	• 직업의 다양성 • 미래세계 유망직업 탐색 • 4차산업 혁명과 SW 교육	• 진로교육정책 이해 •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계열선택 • 창체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 입시정책 이해 • 포트폴리오 준비 전략

주: 교육청 진로교육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경상북도교육청. 2013; 서울시교육청, 2012; 인천시교육청, 2013; 전라남도교육청, 2014; 제주도교육청, 2018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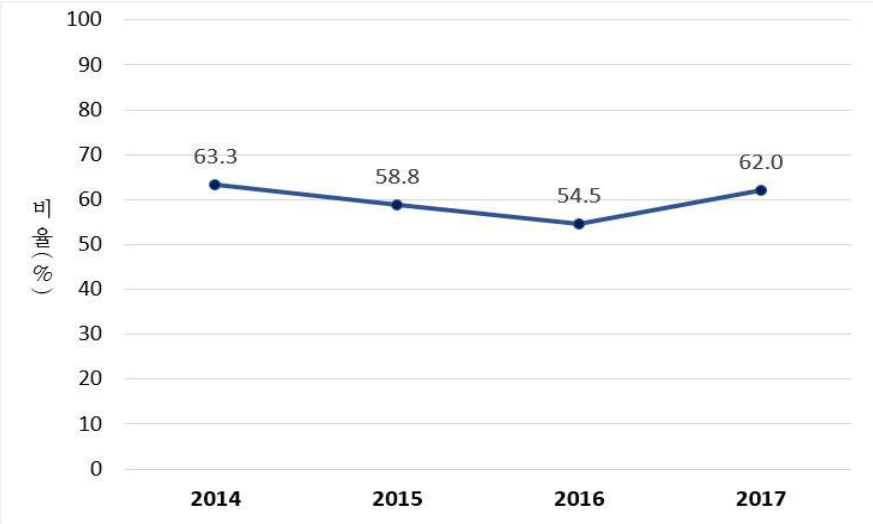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의 취지와 내용은 공통적이지만, 추진방식에서는 시기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희망학교 또는 진로교육 거점·연구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학교가 교육청의 교육과정을 참고하되 학생과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서울시교육청, 2014; 인천시교육청, 2013). 그러나, 교육청에 따라서는 진로활동실이 설치된 학교에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필수적으로 개최하게 하기도 하였다(경상북도교육청, 2013; 광주시교육청, 2018).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단위학교보다는 지역교육청, 지원청 또는 진로진학 지원센터가 주관하는데 방점을 두기도 하였다(광주시교육청, 2015; 부산시교육청, 2019).

2. 학교의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 현황

최근 고등학교의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률은 다음 [그림 4-1]과 같이 60% 내외였으며, 1회당 평균 참석 인원은 약 55명으로 보고되었다(국가통계포털)[16]. 2012년 교육부에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 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2013년 이후 교육청 진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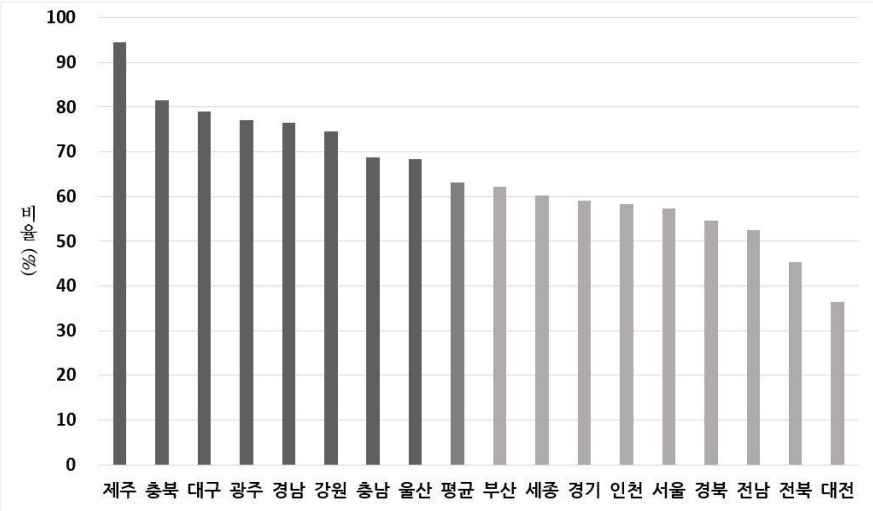
16)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를 모두 포함한 통계이다.

육 계획에서 이를 평가지표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뤘던 것으로 보인다(경상북도교육청, 2013; 울산시교육청, 2013; 제주도교육청, 2013). 그러나, 단위학교가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하는 비율은 2014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러다가 2016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년 발표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되면서(교육부, 2016a) 다시 동력을 얻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4-1] 고등학교의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률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가 교육부 정책 추진과제로 포함되어있지만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 2017년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했다는 비율은 지역별로 달라 많게는 지역 내 90%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곳도 있으나, 적게는 40% 미만의 학교에서 시행했다는 곳도 있었다.



[그림 4-2] 2017년 지역별 학교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률

위와 같은 지역 내 시행 학교 비율의 차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먼저,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주요 사업으로 역점을 두는지는 교육청 간 차이가 있었다. 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에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상세히 계획한 지역이 있지만(광주시교육청, 2017; 제주시교육청, 2017),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언급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이들은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개최하기보다 가정통신문(드림레터)을 나눠주고 팟캐스트 방송(진로레시피)을 홍보하는 등 간접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시교육청, 2017; 전라남도교육청, 2017; 전라북도교육청, 2017).

교육청 내에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하는 학교와 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은 희망하는 학교 및 진로교육 여건을 확보한 학교에 우선 지원되는 절차 때문이다. 즉, 진로교육 중심학교로 선정된 학교 또는 진로활동실을 구축한 학교에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필수로 개최하게 하고 인근 학교 학부모도 참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인천시교육청, 2015). 그러나 공공·민간 기관에서 주최하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보다 학교에서 개최했을 때 참석률이 높았다는 선행연구(조희경 외, 2013)에 비추어,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진로아카데미를 개최하는지가 중

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제 2 절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

앞서 1절에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으로 학교에서 추진하는 진로아카데미의 교육내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하 2절과 3절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려는 정책 투입의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학부모를 고려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진로교육 성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합동최소자승회귀모형(Pooled OLS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모형에 투입한 변수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1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 투입으로 진로지도 전문성을 내포하는 진로전담교사의 경력, 진로체험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진로체험기관 수, 진로교육 환경인 진로활동실 설치 여부, 그리고 학부모를 고려한 진로교육 운영으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이 학생에게 발현되는 진로교육 성과를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1. 기술통계

우선,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시행한 학교와 아닌 학교로 구분하여, 주요 종속변수 및 진로교육 정책 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다음 [표 4-2]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학교 진로교육 성과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인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한 학교에서 평균 3.757이며, 시행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3.722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더 높았다.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는 학부모 진로아카데

미 시행 학교에서 3.691, 미시행 학교에서 3.661로 보통~만족 정도였으며 시행 학교에서 더 높았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인적 자원으로 진로전담교사의 경력은 평균 5년 정도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에 활용하는 진로체험기관 수는 대략 시행 학교에서 16곳, 미시행 학교에서 13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육 독립 공간을 확보한 비율은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더 높았으며, 복합 공간 또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비율은 미시행 학교에서 더 높았다. 이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진로활동실을 설치하게끔 하는 지역이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경상북도교육청, 2013; 광주시교육청, 2018).

학생특성으로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여학생 비율이 더 높았고,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빈도가 더 높았다.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은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특성으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하는 학교는 국공립 학교인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2학년 내에 8~9학급의 규모였는데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 학교에서 학급 규모가 더 컸다. 또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하는 학교는 중소도시에 소재할 확률이, 시행하지 않는 학교는 대도시 또는 읍면·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인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이 더 높았으며,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빈도도 높았다. 이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이 학교 진로교육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 성과의 차이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 검증하려면 여타 진로교육 정책 투입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설명력이 유의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진로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학교특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진로교육 정책의 주요 물적·인적

자원이 학생에게 나타나는 진로교육 성과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17].

[표 4-2] 학교의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

변수명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미운영			Sig.
	N	평균	SD	N	평균	SD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16,348	3.757	0.680	10,238	3.722	0.682	*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16,348	3.691	0.962	10,238	3.661	0.957	*
학교 진로전담교사 경력	16,348	5.362	1.887	10,238	5.398	1.733	
학교 진로체험 기관 수	16,348	16.151	19.130	10,238	13.237	16.367	*
학교 진로교육 독립 공간	16,348	0.559	0.496	10,238	0.482	0.500	*
학교 진로교육 복합 공간	16,348	0.204	0.403	10,238	0.226	0.418	*
학교 진로교육 공간 없음	16,348	0.237	0.425	10,238	0.292	0.455	*
여학생	16,348	0.512	0.500	10,238	0.501	0.500	*
학습 태도	16,348	3.544	0.810	10,238	3.537	0.797	
부모와 진로 대화빈도	16,348	3.339	1.037	10,238	3.308	1.028	*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18]	10,495	15.636	1.930	5,326	15.601	1.924	
국공립	16,348	0.614	0.487	10,238	0.577	0.494	*
2학년 학급 수	16,348	8.623	3.183	10,238	8.047	3.486	*
학교 소재 대도시	16,348	0.377	0.485	10,238	0.389	0.488	*
학교 소재 중소도시	16,348	0.386	0.487	10,238	0.344	0.475	*
학교 소재 읍면/도서벽지	16,348	0.237	0.425	10,238	0.266	0.442	*

17) 한편,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횡단면 자료를 합동(pooling)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연도별로도 기술통계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의 진로개발역량과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는 해가 지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육 인적·물적 자원의 평균값도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커지고 있었다. 연도 별 차이의 유의성에 대하여 분산분석 후 scheffe 사후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중소도시 소재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연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의 정책 투입과 성과 지표에서 나타나는 상승 추세를 투입으로 인한 성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통제한 계량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어지는 회귀분석에서는 연도 더미를 투입하여 연도에 따른 이질적인 변화를 통제한 후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도에 따른 기술통계는 [부록 3]으로 제시하였다.

18)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은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만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는 분석한 사례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2. 학교 진로교육정책이 고등학생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정책으로 인한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물적·인적 자원이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학교 클러스터로 표준오차를 보정한 Pooled OLS 모형(이하 POLS)을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 중에서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모형 1에서는 진로교육정책의 대표적인 활용 자원으로 진로전담교사의 경력, 학교가 활용하는 진로 체험기관 수, 진로교육 공간 활용 형태를 관심변수로 주목하였고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체험기관 수가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유의하였다. 더불어, 독립된 진로활동실이 있는 학교는 진로교육 전용 교실이 없는 학교에 비하여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진로활동실을 다른 용도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학교는 공간이 없는 학교와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적 자원이자 진로교사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진로전담교사의 경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변수를 추가하여 학교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운영함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학부모 진로교육을 시행한 학교에서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진로체험기관 수와 진로교육 독립 공간이 그대로 유의하였으며, 진로교육 독립 공간의 계수 값이 줄어들었다.

그 외에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을 모형에서 통제하였는데, 최종 모형인 모형 2를 중심으로 통제변수를 살펴보았다. 학생특성은 대체로 강한 유의성을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교육 만족도가 낮았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표 4-3] 고등학교 진로교육정책이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POLS (cluster robust inference)	
		모형 1	모형 2 (모형1+학부모 진로교육)
학교 진로전담교사 경력		0.005 (0.006)	0.005 (0.006)
학교 진로체험 기관 수		0.001** (0.000)	0.001** (0.000)
학교 진로교육 독립 공간		0.072*** (0.022)	0.069*** (0.022)
학교 진로교육 복합 공간 (참조: 공간 없음)		-0.008 (0.027)	-0.008 (0.026)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0.049** (0.019)
학생특성	여학생	-0.204*** (0.017)	-0.204*** (0.018)
	학습 태도	0.318*** (0.010)	0.317*** (0.010)
	부모와 진로 대화빈도	0.187*** (0.007)	0.187** (0.007)
학교특성	국공립	-0.002 (0.020)	-0.005 (0.019)
	학교 규모	-0.016*** (0.004)	-0.017*** (0.004)
	중소도시 소재	-0.056** (0.022)	-0.058*** (0.022)
	읍면/도서벽지 소재 (참조: 대도시 소재)	-0.076*** (0.029)	-0.077*** (0.029)
cons		2.128*** (0.065)	2.107*** (0.065)
year-fixed		yes	
Adjusted R^2		0.117	0.115
N		20,159	20,159

- 주: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제시함. *** p<0.01, ** p<0.05, * p<0.1

보인 학생일수록,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와 대화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 진로교육에 더욱 만족하고 있었다. 학교특성 중에서는 학교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소재한 학교에 비해 중소도시, 읍면·도서벽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투입으로써 학교가 다양한 체험기관을 활용할 때 학생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진로교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진로교육을 위한 독립된 교실을 확보한 학교에서 학생이 더 만족하는 진로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학생이 체감하는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학교 진로교육정책이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앞선 항에서는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로 진로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학교 진로교육의 성취목표인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수로 살펴보았으며(교육부, 2016b),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

우선, 모형 1에서 진로교육 정책에서 물적 자원으로 투입한 독립변인을 살펴보면, 학교가 활용하는 진로체험기관 수가 많은 곳에서, 학교 진로교육 독립 공간을 설치한 곳에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전담교사의 경력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로교육 공간을 다른 기능과 복합적으로 활용한 학교는 공간이 없는 곳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변수를 추가하여 학교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운영함에 따른 모형의 변화를 함께 살펴

보았다.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비하여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높았다. 또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모형에 투입했을 때, 학교 진로 체험기관 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으며, 진로교육 독립 공간은 계수 값이 소폭 감소하였다.

통제변수를 모형 2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생특성으로는 여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남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갖춘 학생일수록 진로개발역량이 높았으며, 부모와 진로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나누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더 높았다. 다만,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은 진로개발역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학교특성으로는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높았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가 낮았던 것과 다른 방향의 결과이다. 또한, 대도시 소재 학교 학생과 비교하여 중소도시와 읍면·도서 지역에 소재한 학교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표 4-4] 고등학교 진로교육정책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POLS (cluster robust inference)	
	모형 1	모형 2 (모형1+학부모 진로교육)
학교 진로전담교사 경력	0.000 (0.003)	0.000 (0.003)
학교 진로체험 기관 수	0.001* (0.000)	0.000 (0.000)
학교 진로교육 독립 공간	0.043*** (0.011)	0.041*** (0.011)
학교 진로교육 복합 공간 (참조: 공간 없음)	0.017 (0.016)	0.018 (0.016)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0.026** (0.011)

학생특성	여학생	-0.085*** (0.009)	-0.086*** (0.009)
	학습 태도	0.454*** (0.008)	0.454*** (0.008)
	부모와 진로 대화빈도	0.153*** (0.005)	0.153*** (0.005)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	-0.002 (0.002)	-0.002 (0.002)
학교특성	국공립	-0.012 (0.010)	-0.014 (0.010)
	학교 규모	0.004** (0.002)	0.004* (0.002)
	중소도시 소재	-0.054*** (0.012)	-0.055*** (0.012)
	읍면/도서벽지 소재 (참조: 대도시 소재)	-0.032* (0.016)	-0.033** (0.016)
cons		1.644*** (0.055)	1.635*** (0.055)
year-fixed		yes	
Adjusted R^2		0.406	0.404
N		15,821	15,821

- 주: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제시함. *** p<0.01, ** p<0.05, * p<0.1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진로개발역량에 대하여 현 학교 진로교육 정책에서 학교로 공급하는 진로체험기관의 수와 진로전담교사의 경력은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 진로교육 정책 자원 투입보다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의 설명력이 더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생이 일차적 대상이 아니었지만, 진로교육에서는 학부모를 고려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 3 절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병행에 따른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차별적 효과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하였듯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에는 부모의 영향이 강하게 보고되고 있다(김소라, 문승태, 2017; Dietrich & Kracke, 2009). 이에, 이 절에서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서 학교 진로교육 자원 투입의 효과가 촉진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즉, 학부모 대상 진로강연 운영과 학교 진로교육 물적·인적 자원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분석하였다. Pooled OLS 분석(이하 POLS)을 수행하였고, 연도 고정효과를 투입하고 학교 클러스터를 적용하여 표준오차를 도출하였다.

1.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병행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정책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제고 효과

여기서는 진로체험기관 수와 진로전담교사의 경력, 그리고 진로교육 전용 공간 활용이 진로교육 성과 중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가 학부모를 고려하여 진로교육을 병행할 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나타내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여부와 진로교육 정책으로 투입된 학교 진로교육 물적·인적 자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를 [표 4-5]로 제시하였다.

모형 5에서는 학교의 독립된 진로교육 공간이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전담교사 경력, 진로체험기관 수와 진로교육 복합 공간에 대해서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시행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독립된 진로교육 공간의 효과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병행할 때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병행에 따른 진로교육정책의 차별적 효과(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모형3 진로전담교사 경력	모형4 진로체험 기관 수	모형5 진로교육 독립 공간	모형6 진로교육 복합 공간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POLS (cluster robust inference)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학교 진로전담교사 경력	-0.009 (0.011)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학교 진로체험 기관 수		-0.000 (0.001)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학교 진로교육 독립 공간			0.117*** (0.029)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학교 진로교육 복합 공간				0.038 (0.035)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0.097 (0.066)	0.055** (0.024)	0.049* (0.027)	0.053*** (0.020)
학교 진로전담교사 경력	0.012 (0.010)	0.005 (0.006)	0.005 (0.006)	0.006 (0.006)
학교 진로체험 기관 수	0.001** (0.000)	0.001 (0.001)	0.001** (0.000)	0.001** (0.000)
학교 진로교육 독립 공간	0.068*** (0.022)	0.069*** (0.022)	0.069** (0.032)	0.068*** (0.022)
학교 진로교육 복합 공간 (참고: 공간 없음)	-0.007 (0.026)	-0.007 (0.026)	-0.008 (0.026)	0.004 (0.037)
control variables	yes	yes	yes	yes
year-fixed	yes	yes	yes	yes
cons	2.075*** (0.074)	2.103*** (0.065)	2.107*** (0.067)	2.167*** (0.084)
Adjusted R^2	0.1107	0.112	0.112	0.112
N	20,159	20,159	20,159	20,159

- 주1: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제시함. *** p<0.01, ** p<0.05, * p<0.1
- 주2: 통제변수는 연구문제 2와 같이 투입하였음

2.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병행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정책의 진로개발역량 제고 효과

이어서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학교 진로교육 정책 자원의 효과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 9에서 진로교육 독립 공간 변수는 학부모 진로강연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정적인 계수가 더 유의하였다. 이는 진로교육 독립 공간 운영의 효과가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병행할 때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더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형 8에서 진로체험기관 수와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여부의 상호작용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모형 10에서 진로교육 복합 공간과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의 상호작용이 진로개발역량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진로체험기관과 진로교육 복합 공간은 진로개발역량을 높이는 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연구문제 2). 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아카데미를 병행해서 운영했을 때 다양한 체험기관을 활용한 진로교육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유의하게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교육을 위한 독립된 공간은 아니지만 다른 기능과 병행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병행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경력과 학부모 대상 진로강연 운영의 상호작용은 모형 3에서와같이 모형 7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한 학교에서 다양한 진로체험기관을 활용한 진로교육의 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교에 진로활동실을 독립적인 형태 또는 타 기능과 복합적인 형태로 확보한 곳에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병행할 때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강화되었다. 즉,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병행되었을 때 학생에게 공급하는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앞선 연

구문제 2의 분석결과와 결부 지어보면, 학부모 진로교육을 운영은 그 자체의 효과와 함께 학교 진로교육 정책과 상호작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4-6]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병행에 따른 진로교육정책의 차별적 효과(진로개발역량)

	모형 7 진로전담교사 경력	모형 8 진로체험 기관 수	모형 9 진로교육 독립 공간	모형 10 진로교육 복합 공간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POLS (cluster robust inference)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학교 진로교사 경력	0.003 (0.006)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학교 진로체험 기관 수		0.001* (0.001)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학교 진로교육 독립 공간			0.066*** (0.016)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학교 진로교육 복합 공간				0.042* (0.022)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0.009 (0.036)	0.012 (0.013)	0.023 (0.017)	0.029*** (0.011)
학교 진로전담교사 경력	-0.002 (0.005)	0.000 (0.003)	0.000 (0.003)	0.000 (0.003)
학교 진로체험 기관 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학교 진로교육 독립 공간	0.042*** (0.011)	0.040*** (0.011)	0.036* (0.019)	0.041*** (0.011)
학교 진로교육 복합 공간 (참고: 공간 없음)	0.018 (0.016)	0.017 (0.016)	0.018 (0.016)	0.026 (0.022)
control variables	yes	yes	yes	yes
year-fixed	yes	yes	yes	yes
cons	1.646*** (0.062)	1.644*** (0.054)	1.637*** (0.056)	1.632*** (0.055)
Adjusted R^2	0.4019	0.402	0.402	0.402
N	15,821	15,821	15,821	15,821

- 주1: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제시함. *** p<0.01, ** p<0.05, * p<0.1
- 주2: 통제변수는 연구문제 2와 같이 투입하였음

제 5 장 논의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에 부모의 영향력이 보고되는바 (Blustein, et al. 1991), 학부모의 가정 진로지도가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조절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로교육에 활용되는 물적·인적 자원이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함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앞서 도출한 문헌 분석과 계량분석의 결과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면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제 1 절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학교에서 고등학교 진로교육 성과 제고

본 연구는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부모의 합리적인 진로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학교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운영할 때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교가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학교 진로교육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진로교육에 더 만족하고 있었으며,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인 진로개발역량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로 살펴본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의 교육내용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는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연수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대학 진학설명회와는 구별되는 프로그램이다(서울시교육청, 2012). 자녀 이해 및 소통, 직업 세계의 변화, 학교

진로교육 활동, 진학 및 입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지도 과정에서 아이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의견 차이와 갈등을 겪으면서 고민과 불안을 호소하였다(유정이 외, 2009). 또한,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자녀 진로지도를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백은영, 2010; 정은진, 2018a). 이에, 학부모의 진로지도 정보에 대한 수요(needs)는 상당히 존재하며, 참여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조희경 외, 2013).

따라서,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아카데미를 개최하였을 때, 위와 같은 학부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타 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했을 때보다 학교에서 시행했을 때 평균 참여 인원이 더 많음을 고려했을 때(조희경 외, 2013), 학교에서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한 것이 접근성을 높여 학부모의 진로아카데미 참여로 이어졌을 수 있다. 또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에 참여한 학부모에게서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이 높았다는 선행연구 역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한 학교에서 나타난 진로교육 성과를 뒷받침한다(김소라, 문승태, 2017; 장현진 외, 2016).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에 비추어 결과를 해석하였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의하면 부모는 환경·맥락 변인으로 학생의 학습 경험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진로지지 또는 장벽으로 기능하여 진로발달의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nt, et al., 2000). 따라서,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했을 때, 학부모는 학교를 통해 합리적인 진로지도 방법과 진로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선택에 관여할 때 진로장벽으로 기능하지 않고 진로지지로 작용하여 학생이 학교 진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더욱 만족할 수 있고, 진로개발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더욱 확대되었을 때 학생에게 더 만족스러운 학교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진로개발역량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진로교육 성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학교 진로교육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 2 절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운영에 따른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 효과 제고

본 연구는 학교가 진로교육 정책을 시행하면서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을 병행할 때 학생에게 공급하는 학교 진로교육 자원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시행한 학교에서 학교의 진로체험기관 수와 독립된 진로활동실 확보와 같은 진로교육 물적 자원이 진로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 확인하였듯이,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에는 변화하는 학교 진로교육 정책과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최근 진로교육이 강화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이러한 학교 교육 활동을 대학입시에서도 반영하려 하고 있다.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 대부분을 책상에 앉아 공부했던 과거의 학교와 비교하면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변화를 학부모가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학교의 교육활동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자녀를 지도하게 된다. 이는 자녀에게 혼란과 스트레스를 주거나 학교 진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양미진 외, 2010; 최원호 외, 2004). 또한, 학부모의 전통적 진로관에 입각한 진학 위주의 요구는 학교 담임교사 혹은 진로교사의 교육 방향과 충돌하여 학교의 진로교육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유정이 외, 2015; 이인수, 2017).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는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공감과 협조를 끌어내 학생의 능동적인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고,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활동실이 독립 공간으로 마련된 학교에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병행했을 때 효과적이었을 뿐 아니라, 타 기능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공간 역시 상호작용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교육청에서 진로활동실을 설치한 학교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열게끔 장려한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경상북도교육청, 2013; 광주시교육청,

2018; 인천시교육청, 2013). 즉, 진로활동을 위한 별도의 교실이 있는 경우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고등학생에게 진로교육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학교에 설치하고 확보한 다양한 진로교육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3 절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에서 투입한 물적·인적 자원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을 대리하는 변인으로 정책 시행으로 학교에 투입된 진로교육 자원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물적 자원으로 학교가 활용하는 진로체험기관 수, 진로교육 공간 확보 여부를 관심변수로 분석하였다. 또한, 진로교육 인적 자원으로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진로전담교사로의 배치 후 경력을 활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에 따른 물적 자원 투입은 진로교육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진로체험기관을 많이 활용하는 학교에서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진로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학계의 주요 담론에서도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지연, 2014; 정철영 외, 2015). 진로체험기관을 다수 확보한 학교에서는 활용하는 기관이 적은 학교에 비하여 다양한 진로체험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고, 학생은 원하던 곳에 가서 만족스러운 체험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학교에 다양한 진로체험기관을 지원하는 정책이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하게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진로활동실을 독립 공간으로 마련한 학교에서 학생의 학

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학교 진로교육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한 학계 논의 및 진로교사 인식 조사 연구에서 진로활동실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김나라 외, 2012; 장현진, 2015; 정철영 외, 2018). 진로활동실은 2011년부터 학교의 유휴 교실 혹은 상담실을 활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 진로동아리 활동, 진로상담 등 학교에서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최근에는 공간을 확보하여 신청한 학교를 선발하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전국교육신문, 2014.5.21.; 충청일보, 2018.6.25.). 교육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교실과 같은 물리적 자원의 충분함은 필수적이며(이종재 외, 2015, p.284), 진로교육 활동에서도 필수 자원으로 언급된다(이지연, 최동선, 2005). 진로교육활동은 학습자 중심, 토론·조별 협력활동으로 진행되거나, 대규모 강연 형태의 경우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급 외의 전용 공간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체험기관 수와 독립된 진로활동실과 같은 진로교육 인프라가 학교에 확충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진로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문진, 소경희, 2016). 이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선택모형에서 배경맥락 변인으로 기능하여 학생에게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의 흥미 발달과 진로선택, 진로준비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Lent, et al., 1994, 2000). 이에 고등학교에 진로활동실을 구축하고 양질의 진로체험기관을 확보하게끔 지원하는 정책이 고등학생에게 만족스러운 진로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뒷받침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진로체험기관 수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학교 진로교육 성과이며(장현진 외, 2015; 장현진 외, 2017), 이 변수를 매개하여 진로개발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주영주 외, 2013) 진로개발역

량 증진에도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로교육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진로개발역량 함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김신영, 최운실, 2014) 추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진철 외(2013)는 체험중심 진로교육에서는 경험을 통한 학습이 주관적 의미 발견 및 성찰을 통해서 전인격적 성장으로 갈 수 있으며 이때 촉진자 및 격려자(facilitator)로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질 높은 진로체험기관을 공급할 뿐 아니라 진로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성찰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 또는 코디네이터의 전문적인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학교 진로교육의 인적 자원이자 전문성을 의미하는 진로전담교사의 경력은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진로전담으로 배치된 경력이 높은 진로교사는 배치 후 진로교육 관련 연수 참여와 실제 학교 진로교육 업무전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이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진로전담교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나아가 혹자는 진로전담교사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매일신문, 2018.9.17.). 이에, 본 연구는 이를 더 들여다보고자 한다.

진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대부분 학교에 배치되어있었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는 진로교육을 전담할 담당 책무가 뚜렷하지 않았고, 이 당시 학생들의 진로교육 참여 현황은 저조하였다(임언, 2009). 즉, 이상적으로는 모든 교사가 진로교육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여러 교육적 가치와 이해가 공존하는 학교 현실에서는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이 없으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진로교육이 교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되, 이들이 실제로 전문성을 갖게끔

지원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로전담교사가 정체성 혼란, 진로전담 업무 과다에 관리자, 동료 교사의 이해 부족과 갈등까지 더해져 압박을 겪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유은선, 이종연, 2017; 유정이 외, 2015; 한현우, 이병준, 2015). 진로교육과 교과교육의 연계가 중요함에도 주변 교사들의 몰이해가 더해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본래 교과로의 전환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국민일보, 2016.9.25.). 즉, 진로전담교사를 여타 물적 자원과 같이 공급량을 늘리거나 전문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바로 성과로 이어진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 교사는 사람인지라 직무 수행과정에서 동기저하, 직무 불만, 소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Dickson & Roethlisberger,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로전담교사의 경력이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진로전담교사의 무용(無用)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진로교사의 직무 수행과정의 고충이 전문성 발휘를 저해하여 진로교육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모든 교육은 진로교육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19]” 진로교육의 창시자로 불리는 Sidney Marland는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또는 일터에 안착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Marland, 1971). 이후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학교교육 혁신의 필요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정진철 외, 2013), 학교가 가르치는 내용이 학생의 졸업 후 삶과 이어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진로체험기관 확보, 진로활동실 구축과 같은 진로교육 정책이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효과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운영한 학교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이하 6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과 결과를 포괄하여 연구 전반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학술적 측면에서의 제언을 남기며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제 1 절 요약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에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에, 학부모 진로교육을 운영함에 따라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세 가지 연구문제에 주목하였는데 먼저, 학교에서 시행

19) “All education is career education, or should be.”(Marland, 1971).

하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인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진로교육에 활용하는 물적·인적 자원과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을 중심으로 고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한 학교에서 진로교육 정책으로 투입된 자원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문헌 분석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 계획문서에서 학부모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고, 2016년~2018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자료의 일반계고 2학년을 대상으로 연도고정효과를 투입하고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사용한 합동최소자승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를 지원하는 정책 중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는 진로아카데미가 대표적이었다. 교육내용으로는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및 양육 등 자녀 이해에 관한 것부터 진학 및 학과, 직업 정보, 학교 진로교육 정책 및 대학입시정책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었다. 또한, 지역교육청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 학교 비율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진로교육 물적 자원인 진로체험기관 수와 진로교육 독립 공간 확보는 학교 진로교육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학교의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역시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인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 역량과 각각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인적 자원인 진로전담교사의 경력은 학교 진로교육 성과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한 학교에서, 학교가 활용하는 진로체험기관 수, 진로교육 전용공간 확보가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제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진로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학교 진로교육 정책으로 투입된 물적 자원의 효과를 증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 2 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문제의식, 분석결과를 종합한 결론을 요약하여 위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세 가지 제언을 아래와 같이 남기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부모 아카데미와 같이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에서 학부모의 중요성은 진로교육 정책 초기부터 언급되었으며, 따라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정책이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되어 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교육과학기술부, 2012a; 교육부, 2013; 교육부, 2014; 교육부, 2018).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에서 학부모 대상 온라인 진로정보 자료인 드림레터(가정통신문), 팟캐스트 방송 등을 공급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온라인 매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진행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대전시교육청, 2017; 전라남도교육청, 2017; 전라북도교육청, 2017 등).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은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을 높일 뿐 아니라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더 많은 학교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으로 진로아카데미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진로정보를 선호한다는 보고도 있긴 하지만, 고등학생 학부모에게 드림레터(33.6%), 진로레시피(16.5%), 맘에쏙진로(13.3%)와 같은 온라인 자료의 인지도 역시 매우 높진 않은 수준이어서(정은진, 2018a), 온라인 자료의 접근성 및 교육 효과가 더 좋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 반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아카데미는 교육청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할 때에 비하여 참석률이 훨씬 높았다(조희경 외, 2013). 따라서,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시행하되, 교육내용을 내실화하고, 다수 학부모가 참석하기 쉬운 시간에 운영

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볼 수 있겠다.

또한,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아카데미는 최근 진로교육 정책에서 강조하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수행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교육부, 2016a; 교육부, 2018b; 이지연, 2014). 학교 진로전담교사가 학생, 학부모 진로상담 내용을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주로 겪는 문제와 교육적 필요(needs)를 발견하고 이를 교육내용으로 삼아 진로아카데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전담교사 및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만나고,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교육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과 이를 교육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진로교육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 관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에서는(교육부, 2018b) 학생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교육 주체인 학부모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진로체험기관 확보, 진로활동실 설치와 같은 학교에 진로교육 물적 자원을 확충하려는 정책이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진로체험기관을 많이 확보한 학교일수록, 진로활동실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마련한 학교에서 공간이 없는 학교에 비하여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독립된 진로활동실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연(2014)은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기 전에 충분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가 선행되어야 학생 맞춤형 진로서비스가 실효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학생이 자신의 적성, 흥미 그리고 직업현장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고 이해하려면 다양한 진로체험기관을 확보하여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통합 진로교육,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정철영 외, 2015). 이러한 교육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새로운 수업 개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진로활동 전용 교실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희망학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일부 학교에서부터 진로활동실이 구축되고 있다(광주시교육청, 2018).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학교에

진로활동실을 마련하고자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예산 부족과 학교에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18.2.5.). 「진로교육법」에서 명시한 모든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에 기본적인 물적 인프라부터 우선 갖춰져야 함은 자명하다. 따라서, 학교에 진로교육 물적 인프라를 확보하여 진로교육 교과·비교과 활동 및 상담이 이루어질 기초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 투자와 함께 사업 진행을 위한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된다.

세 번째,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으려면 관리자와 동료 교사가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동감하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진로전담교사의 경력은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성과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무관심 또는 부정적 인식으로 진로전담교사가 정체성 혼란 및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유은선, 이종연, 2017; 유정이 외, 2015; 한현우, 이병준, 2015). 그러나 동시에 황우원, 김주후(2017)는 관리자와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진로교육 관련 업무를 낮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로전담교사들이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직무에 서툴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진로전담교사와 그 외 교사를 이분화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진로전담교사, 관리자, 교과교사가 함께 참석하여 상호 입장을 나눌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진로전담교사를 포함하여 학교 교사들이 공통의 진로교육 방향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진로교사와 관리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진로전담교사가 교육청의 연수와 진로지도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진로교육 관련 전문성을 반영하여 단위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학술적 제언

본 연구에서 밝힌 결과와 미처 다루지 못한 범위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가 가능한 분야를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와 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후속연구 제언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첫째, 학교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시행하는데 어떤 학교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는지 경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는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 학교가 갖는 특성이자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를 통해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고려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차이가 특정 변인에 의한 체계적 차이인지 확인하여,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 시행을 확대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특히 도움이 필요한 학부모가 이러한 정책을 인지하고 참여하게끔 유도하기 위하여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진로교육 참여 집단이 갖는 학부모의 개인, 가구 특성으로 인한 편의(bias)를 배제하고도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실증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시행한 학교에서 학교 및 가정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들여다보는 설문 또는 면담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이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시행한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물적 자원이 효과가 증진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실제 학교에서 어떠한 원인과 경로로 발생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회적 과정, 즉 인과 기제(causal mechanisms)를 들여다보아야 하겠다(하연섭, 2008; p. 256~257). 예컨대,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시행한 학교에서 학부모의 가정 진로지도가 어떠한지 시행 전과 후 또는 시행하지 않은 학교를 대

조사례로 삼아 비교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시행으로 인한 학부모의 진로 인식 전환을 학생은 어떻게 체감하는지, 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설문 또는 소수 사례 면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행정학계에서 학교 진로교육 정책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증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으며, 진로교육법에서도 모든 국민의 진로개발을 정부와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제외하고 학교의 진로교육을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한 교육행정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이인수, 2017; 이호준 외, 2019). 경제, 경영,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진로교육이 고용 정책 또는 상담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학교 교육 정책으로 들어온 이상 교육적 가치를 투영한 정책분석이 필요하겠다(목정연, 진영은, 2019). 신현석, 가신현, 주영효, 안선회(2014)는 한국 교육행정학이 교사로부터의 학생 교육을 위한 학문, 교육 중심의 학문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학생의 학습 경험과 학부모교육에 대한 교육행정이 다소 미흡하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습, 진로, 진학 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신현석 외, 2014). 추후 고교학점제 시행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육제도 전반에서 진로교육이 계속해서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교육행정학계에서 진로교육 정책을 조망하고 분석하는 학문적 논의를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진로교육 운영의 조절 효과에 주목하여 학교 진로교육 투입 자원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진로교육 정책 투입 자원의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논하려면, 단위 비용 당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겠다. 정책을 평가할 때 효과를 달성하는 것과 함께 다뤄지는 가치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효율성이다(이성우, 2013, p.223). 즉, 가장 효율적인 자원 또는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면 주어진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책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진로교육 정책의 자원을 논함에 있어 학교에서 활용되는 총량으로 다루었으며, 학생 당 단위 비용 또는 표준화된 단위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단위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예컨대 진로전담 교사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증진하는 방안과 진로체험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에게 더 많은 종류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학교의 진로교육 예산을 추계할 수 있다면 학생 1인당 진로교육 예산이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을 높이는지 확인하는 비용-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덧붙이면, 추후 학교 진로교육 정책 효과의 인과 검증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효능감,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여(정미나, 노자은, 2017)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패널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말한 비용-효과 분석이 가능해지려면 진로교육예산의 범위에 관한 학계의 합의와 더불어 진로교육에 소요한 금액이 항목별로 구분된 결산 자료 데이터 등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데이터 구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그러나, 학교 진로교육 정책이 지금은 확대되고 있으나 효과성,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경기변동에 따라 삭감될 여지가 크다. 이는 학교 진로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 기반의 진로교육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책 처치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진단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공윤정. (2005). 진로장벽 : 이론적 고찰 및 상담 실제에의 적용. **상담학연구, 6**(3), 861-874.

길혜지, 백순근, 양현경. (2018). 마이스터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준비 경험과 진로성숙도 비교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1**(3), 225-248.

김경식, 이현철. (2012).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진로교육의 효과-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과 한국청소년패널 (KYPS) 분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0**(4), 1079-1103.

김경희, 박근혜. (2013). 빈곤청소년의 꿈과 미래 설계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4**(1), 113-134.

김기헌, 유홍준, 오병돈. (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김나라, 방재현, 정진철. (2012).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인식한 학교 진로교육 실태와 요구. **진로교육연구, 25**(2), 183-201.

김두환, 김지혜. (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 45**(4), 128-168.

김민선. (2018).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진로갈등과 진로결정 어려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5**(12), 135-157.

김소라, 문승태. (201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30**(4), 27-48.

김소라, 황영준. (2016). 고등학생 진로체험과 프로그램 평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167-190.

김수정, 장경아, 이지연. (2016). 고등학생의 진로변인과 삶의 만족에 관한 다집단 연구: 성별, 고교유형별 차이 탐색. **진로교육연구, 29**(3), 119-139.

김승보, 진미석, 한상근, 이지연, 이윤진. (2013). 초・중등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신영, 최운실. (2014). 진로체험학습에서 학생· 교사의 주도성이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7**(4), 71-93.

김영혜, 안현의.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진로발달연구의 동향 분석: 대학생 연구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4), 1-18.

김영혜. (2013). **대학생의 부모-자녀 유대와 진로결정 관계에서 성취압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애희, 윤종희, 김리진. (2010). 인문계열 남자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1**(2), 177-201.

김은경, 이선화. (2009).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 24**, 235-266

김재희. (201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교육활동 참여 및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22**(1), 75-109.

김재희, 장현진. (2018). 고등학생의 창업교육활동 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3**(2), 1-25.

김창환, 엄문영, 김기헌,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 이상돈(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연구(Ⅱ):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효선, 양승호. (2012).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학생특성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3 수준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직업교육연구, 31**(1), 57-74.

김효정, 이길재, 이정미. (2013). 학교 구성원별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비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1), 183-209.

김희수. (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김희수, 홍성훈, 윤은종.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37-65.

남수정. (2011). 고교생의 진로교육의 현황 및 진로역량과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1), 283-304.

모영민. (2018). **학생부종합전형의 고교 진로교육 효과 분석 - 정시전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진, 소경희. (2016). 중학교 진로교육 운영 실태 분석: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9**(4), 135-155.

박나실. (2017). 일반고 진로교육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교육목표와 실행 주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5**(4), 151-176.

박미란, 이지연. (2010). 진로성숙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학교교육의 효과 검증. **인간이해, 31**(1), 65-88.

박하나, 조영달, 박윤경. (2013).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6**(1), 21-49.

박효희, 성태제(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1), 117-142.

백선희, 심우정. (2018).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활동 경험: 학교의 공급과 학생의 경험. **한국교육, 45**(4).

백은영. (2010).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학부모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진로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유정, 이지은, 김수진. (2013).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성은모, 최창욱. (201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현석, 가신현, 주영효, 안선회. (2014). 교육행정학 연구의 학문지도: 한국교육행정학의 블루오션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0**(2), 35-77.

안미경, 유금란. (2013). 부모의 진로 및 자율성 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9), 73-95.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송민경. (2012).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Ⅰ: 진로준비**.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96.

안여진. (2019). **일반 고등학교 진로교육정책에 나타난 진로교육의 성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양미진, 허자영, 채민정, 김경민. (2010).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장벽 연구: 사이버 상담 게시판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4), 45-73.

어윤경, 변정현. (2013).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따른 학업성취도, 학교폭력, 진로성숙도의 변화: 일반계 고교와 특성화 고교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6), 3477-3498.

오인수, 손지향, 조유경. (2018).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대학생들의 '대 2 병'경험 분석 연구. **교육과학연구, 49**(2), 27-58.

유은선, 이종연. (2017).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진로교육연구, 30(2), 127-156.
유정이, 홍지영, 김진희. (2015).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지각한 역할수행의 어려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2), 1-30.
유정이, 황재원, 박지아. (2009).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3), 71-96.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김혜진. (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Ⅱ)** - 핵심 역량 영역별 하위 요소 설정을 중심으로 - .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성우. (2013).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 서울: 조명문화사.
이은숙, 김민정. (2017).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4), 49-68.
이응택, 최재혁. (2017). 고등학생의 부모와의관계 및 부모와의진로관련대화와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1), 47-66.
이인수. (2017). **일반고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의 패러독스 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재창. (1994). 진로교육 발전방안 탐색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 80-119.
이전이, 김용한. (2018). 다문화 환경에서 교수활동을 위한 교사 전문성 계발의 효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6**(4), 263-287.
이정민, 정혜원. (2016). 고등학생 진로성숙도 발달양상의 잠재계층 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1), 29-53.
이종범, 최동선, 오창환. (2012). 고등학생의 직업포부 수준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4), 25-43.
이종재, 이차영, 김용, 송경오. (2015). **한국교육행정론**. 파주: 교육과학사.
이주희, 문은미. (2011).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 211-226.
이지연. (2013).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학 연구, 20**(6), 219-241.
_____(2014). 단위학교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서비스를 위한 체제적 접근.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44-74.

이지연, 김재희, 이서정. (2017). **해외 진로개발 정책과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발전 방안**.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 이영대,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석민, 정영근, 남미숙, 이건남. (2009).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Ⅱ)(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 최동선. (2005). **초·중등 진로교육의 현황과 혁신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 (2009). 청소년의 진로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신뢰 및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8), 129-148.

이호준, 김영식, 양민석. (2019). 진로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일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변화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8**(3), 81-107.

임언. (2009). OECD 국가 진로교육 실태 비교 분석: 2006 PISA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명희, 정명희, 장석민. (2008).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운영 모델 구축(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효신. (201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장명희, 김선태, 박윤희, 최동선.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현진. (2015).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2017).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2017)** -기초통계표 -.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2018).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1**(1), 21-42.

_____(201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및 진로활동 경험의 영향. **진로교육연구, 32**(3), 43-64.

장현진, 김민경, 류지영, 윤수린, 유미애. (2015). 2015년도 진로교육센터 운영사업 : **진로교육 실태조사(2015)**.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현진, 윤형한, 김민경, 류지영, 이지은, 유미애. (2016). 2016년도 진로교육센터 운영사업(IV):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혜정. (2019). 진로교육 인프라의 혁신 방안 -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19-124.

정미나, 노자은. (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정미나, 임영식. (201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6**(4), 65-84

정윤경. (2008). **캐나다의 국가 진로개발 역량과 적용 프로그램 사례 분석 - Blueprint를 중심으로 -**.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은진. (2018a).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1. 진로교육 현황조사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2018)**.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2018b).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진철, 김나라, 최지원. (2013). 인본주의 교육철학 관점에서 본 체험중심 진로교육으로서의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와 영국 갭이어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3), 85-124

정철영, 정진철, 남중수, 정성지, 이영광. (2018). 경계분석을 활용한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정책과제 도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31**(4), 1-20.

정철영, 임정훈, 김태환, 임한려, 임소현, 이영광. (2019). 진로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개념적 모형 개발. **진로교육연구, 32**(3), 285-307.

조영아, 정철영. (2013).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준비행동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53-77.

조용환, 송수진, 이아리따, 최상근, 차성현. (2009). **고등학생의 학업생활과 문화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조희경, 장석민, 이용순. (2013). **초·중등단계 학부모진로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진로교사의 지원,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진로교육연구, 26**(4), 25-47.

진성희, 성은모, 최창욱. (201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3), 195-220.

최동선, 한상근, 임언, 정윤경, 이상준, 김나라, 이종범. (2008).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와 추진 방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원호, 우규환, 박현주. (2004).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활동 경험이 학생들의 진

로선택에 영향을 준 사례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6), 1070-1081.
최정윤, 신혜숙. (2016). 고교 진로교육 경험이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대학 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9**(3), 31-55.
하연섭. (2011).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제2판. 서울: 다산출판사.
한수민, 오인수. (2014).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와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62**(1), 261-280.
한현우, 이병준. (2015). 인문계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업생애사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575-593.
허정철.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9), 504-513.
황우원, 김주후. (2017).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수행수준과 진로교육으로 인한 변화 사이의 관계: 관리자 및 동료교사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0**(4), 149-167.
Andersen, S. C., & Thomsen, M. K. (2011). Policy implications of limiting immigrant concentration in Danish public school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4*(1), 27-52.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ishop, J. H., & Mane, F. (2004). The impacts of career-technical education on high school labor market succes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3*(4), 381-402.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Byars-Winston, A. M., & Fouad, N. A. (2008). Math and science social cognitive variables in college students: Contributions of contextual factors in predicting goal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25-440.
Cellini, S. R. (2006). Smoothing the transition to college? The effect of Tech-Prep programs on educational attainment.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5(4), 394-411.

DeLuca, S., Plank, S., & Estacion, A. (2006). Doe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ffect College Enrollment?.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Dickson, W. J., & Roethlisberger, F. J. (2004). *Management and the Worker*. Routledge.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9-119.

Dougherty, S. M. (2016).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n High School: Does It Improve Student Outcomes?. *Thomas B. Fordham Institute.*

Evans Jr, J. H., & Burck, H. D. (1992).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interventions on academic achievement: A meta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1), 63-68.

Hooley, T., Watts, A. G., Sultana, R. G., & Neary, S. (2013). The 'Blueprint'framework for career management skills: a critical explora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41*(2), 117-131.

Ginevra, M. C., Nota, L., & Ferrari, L. (2015). Parental support i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Parents' and children's perception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3*(1), 2-15.

Gushue, G. V., & Whitson, M. L. (2006). The relationship among support, ethnic ident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Applying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2), 112-124.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98-217.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

Leung, S. A. (2008). The big five career theories. In J.A. Athanasou, R. Van Esbroec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areer guidance* (pp. 115-132).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Marland Jr, S. P. (1971). Career education now. *The bulleti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55*(355), 1-11.

McWhirter, E. H., Crothers, M., & Rasheed, S. (2000). The effects of high school career education on social-cognitive variab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30.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OECD.

_____(2010). Career guidance, In *Learning for Jobs* (pp. 75-90). Paris: OECD.

Perry, J. C., Liu, X., & Pabian, Y. (2010). School engagement as a mediator of academic performance among urban youth: The role of career preparation, parental career support, and teacher suppor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2), 269-295.

Podestà, F. (2002). Recent developments in quantitative comparative methodology: The case of pooled 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 *DSS Papers Soc, 3*(2), 5-44.

Primo, D. M., Jacobsmeier, M. L., & Milyo, J. (2007). Estimating the impact of state policies and institutions with mixed-level data.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7*(4), 446-459.

Pryor, R. G., & Bright, J. (2003). The chaos theory of careers.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2*(3), 12-20.

Roe, A. (1957). Early determinants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212.

Rogers, M. E., & Creed, P. A. (2011).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using a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framework. *Journal of adolescence, 34*(1), 163-172.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 147-183.

Sawitri, D. R., Creed, P. A., & Zimmer-Gembeck, M. J. (2014). Parental influences and adolescent career behaviours in a collectivist cultural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4*(2), 161-180.

_____(2015). Longitudinal relations of parental influences and adolescent career aspirations and actions in a collectivist socie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5*(3), 551-563.

Sawitri, D. R., & Creed, P. A. (2017). Collectivism and perceived congruence with parents as antecedents to career aspirations: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4*(6), 530-543.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Yon, K. J., Joeng, J. R., & Goh, M. (2012). A longitudinal study of career maturity of Korean adolescents: the effects of personal and contextual factor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3*(4), 727-739.

[정부 문서]

경상북도교육청. (2013). 꿈을 키워주는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관계부처합동. (2006).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11) 계획안(요약).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 2015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2017). 2017년 진로교육 추진 계획(안).

광주광역시교육청. (2018). 2018년 광주 진로교육 추진 기본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0a). 2010 초・중등 진로교육 시행계획.

_____(2010b). 진로진학상담(중등) 교사 충원 및 활용 기본계획(안).

_____(2011a).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안) (2011-1호).

_____(2011b).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_____(2012a). 2012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안).
_____(2012b).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_____(2012.1.5.). 「2011 시도 진로교육 평가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_____(2013).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_____(2013.1.18.). 「2012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결과」발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교육부. (2014). 2014년 진로교육 계획.
_____(2016a).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16~2020).
_____(2016b).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_____(2017). 2017년 진로교육 세부시행계획(안).
_____(2018a). 2018 학교진로교육 추진계획(안).
_____(2018b). 2019 학교진로교육 추진계획.
대한민국정부. (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부산광역시교육청. (2019). 2019 부산교육청 진로교육 기본 계획(안).
울산광역시교육청. (2013).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2013년도 진로교육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12학년도 진로교육 계획.
_____(2014). 2014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2013). 2013학년도 진로교육 추진 계획.
_____(2015). 2015 진로교육 추진 계획(안).
전라남도교육청. (2014). 2014. 전남 진로교육 계획.
_____(2017). 2017. 진로교육 추진 계획.
전라북도교육청. (2017).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기본 계획(안).
제주도교육청. (2013). 2013 JEJU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_____(2018). 2018년 진로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신문기사]

경향신문. (2009.4.15.). 사교육 ‘눈 번쩍’ 공교육 ‘눈 멀뚱’…대학들 ‘입학사정관제’ 확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150340075&code=940401#csidxa36ede36f9d7d3aafc9303181e8dee1 에서 2019.11.1.6. 인출.

국민일보. (2016.9.26.). 진로교사 고충 준비할 것 너무 많아…업무에 짓눌려.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620112#RedyAi 에서 2019.11.30. 인출.

동아일보. (2019.1.15.). 진로교육 체계화 필요… 진학 우선 사고 벗어나야 제자리 찾을 것.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114/93693803/1 에서 2019.11.26. 인출.

매일신문. (2018.9.17.). 복지부동 진로전담교사…학생보다 입시 모르고, 학교선 무슨 일 하는지 알 수 없어.
http://mnews.imaeil.com/Society/2018091613561869599 에서 2019.11.26. 인출.

전국교육신문. (2014.5.21.). 꿈을 설계하는 공간 "진로활동실 구축.
http://www.gk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19 에서 2019.12.10. 인출.

조선일보. (2019.5.13.). "내 길이 아닌가" 불안·초조한 '대2병'… 진로 특강·상담으로 삶의 길 찾아줘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2/2019051201283.html 2019.12.10. 인출.

중앙일보. (2018.2.5.). 버거운 충북도교육청 진로활동실 구축 100% 달성.
https://news.joins.com/article/22394198 에서 2019.12.10. 인출.

충청일보. (2018.6.25.). 충북도교육청, 교과형 진로활동실 조성 사업 확대.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499 에서 2019.11.30. 인출.

한겨레. (2008.2.24.). 진로교육 시간은 ‘영어 테이프’ 듣기 시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71623.html#csidxb5fad288a

44e3658bbb26a7b275bb01 에서 2019.11.22. 인출.
_____(2008.3.2.). “부모는 자녀의 중요한 역할모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73122.html 에서 2019.11.13. 인출.
_____(2010.2.18.). “특목고·입학사정관제 맞춰 학원 더 보내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5429.html#csidx58af73ff2995c55acf26951b2ab02e3 에서 2019.11.16. 인출.
_____(2015.10.2.). [단독]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도농격차 너무 크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11129.html#csidxb197366f94102a789107d98b5974dca 에서 2019.11.22. 인출.
MBC 뉴스. (2010.2.25.). 입학사정관제도 '허점 투성이'. http://imnews.imbc.com/replay/2010/nwdesk/article/2574273_18903.html 에서 2019.11.16. 인출.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http://www.podbbang.com/ch/7445

부 록

[부록 1] 진로개발역량 구성 영역별 하위 요소

연구자	영역	하위 요소
이지연 외 (2009)	자기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과 태도 형성	•자기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자율적, 능동적 태도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직업 세계 이해 및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태도 형성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태도, 성 역할 및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타파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탐색·해석·활용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활용
	진로계획의 수립·관리·실천	•다양한 생활에서의 역할 균형 필요 인식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진로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경제·사회의 변화를 진로계획에 반영
	진로 및 개인 삶의 목표 달성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진로 및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학력 및 자격증 등 획득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
정미나, 임영식 (2013)	자기 이해	•긍정적 자아개념 갖기 •발달과 변화와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타인 및 환경과 긍정적인 상호작용하기
	진로탐색	•진로와 학업(학습)의 관계 이해하기 •일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 태도 형성하기 •효과적으로 진로정보 활용하기
	진로계획 및 준비	•발달 단계에 따른 개인의 역할 및 상호관계 이해하기 •변화하는 사회 및 직업 세계 수용하기 •합리적으로 진로계획 수립 및 준비하기
캐나다 Blueprint	자기관리	•긍정적인 자아상 개발 및 유지 •다른 사람과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 •일생에 걸친 변화와 성장에 대응
	학습 및 직업 탐색	•생애/일 목표를 위한 평생학습 참여 •생애/일 정보의 효율적 이용 •직업과 사회/경제의 관계 이해
	생애/직업 설계	•직업을 구하거나 창조하며 유지하기 •생애/일을 증진하는 의사결정 •삶과 일 역할의 균형 및 연계 •변화하는 생애/일의 속성 이해, 고정관념 극복 •개인의 생애/일 개발 과정을 인식, 참여 및 관리

연구자	영역	하위 요소
미국 NCDG	개인적·사회적 발달	•자기 이해를 통해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유지 •다양성 존중을 포함한 긍정적 대인관계 능력개발 •성장과 변화를 자신의 진로발달에 통합
	교육적 성취와 평생학습	•개인, 여가, 공동체, 가정, 직장에서의 역할 균형 •개인적 직업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적 성취와 수행 수준 획득 •역동적인 사회에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
	진로관리	•진로 목표에 부응하는 진로계획 수립 및 관리 •진로개발의 하나로 의사결정 •정확하고 합리적인 진로정보를 활용한 진로설계와 관리 •취업, 창업, 고용 유지, 개발을 위한 학업적, 직업적, 일반적 고용능력 숙달 •변화하는 고용시장, 사회적 요구, 경제 조건을 자신의 진로계획에 종합
성은모, 최창욱 (2013)	진로설계 (career design)	•자기 탐색 •진로 및 직업 탐색 •진로 결정
	여가 활용 (leisure use)	•여가 필요성 인식 •여가 조절 •여가 몰입
	개척정신 (pioneer spirit)	•차별화 태도 •도전정신 •위험감수
윤형한 외 (2016)	개인·사회	•긍정적 자아개념(자신감, 자존감) •자기 주도성(성실, 적극성, 유연성 및 창의성, 진취성) •사회성(대인관계, 의사소통, 협업) •시민의식(타인 배려, 공동체 의식, 세계시민 의식)
	진로관리	•진로 인식(자아 이해, 직업 세계 이해 및 직업의식) •진로탐색(진로정보, 진로탐색) •진로설계(진로 의사결정 능력, 진로계획, 진로선택, 진로준비)
	학업	•학업 설계(학업 계획, 평생학습, 일·학습 병행) •학습 태도 •학업 성취
	부가	•독서 •학교생활 만족 •행복

[부록 2]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진로개발역량 측정 문항 (고등학생)

영역	번호	세부 문항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1	나는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자기관리(시간, 돈, 건강 관리) 방법을 알고 있다.
	3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4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5	나는 원만한 대인관계(친구, 가족 관계 등)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나는 여러 가지 상황(대화, 발표, 토론 등)에 맞게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일과 직업 세계 이해	7	나는 새로운 직업이나 진로를 개척한 사람들의 사례를 알고 있다.
	8	나는 일과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고 있다.
	9	나는 내가 원하는(혹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10	나는 직업을 통해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설명할 수 있다.
진로탐색	12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진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13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 학과의 정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14	나는 희망(관심) 직업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
	15	나는 여러 가지 직업 정보 중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진로설계와 준비	16	나는 내가 원하는(혹은 관심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17	나는 나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18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내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
	19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20	나는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
	21	나는 진로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부록 3] 주요 변수 연도별 기술통계

변수명	2016년			2017년			2018년			Scheffe. (<0.05 *)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진로개발역량	7,144	3.699	0.665	6,912	3.728	0.649	6,103	3.802	0.694	16<17<18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7,144	3.631	0.917	6,912	3.621	0.989	6,103	3.710	0.983	16<18
(작년) 학부모 진로강연 운영	7,144	0.664	0.472	6,912	0.626	0.484	6,103	0.680	0.467	17<16, 18
진로 체험기관 수	7,144	14.023	14.776	6,912	15.386	20.641	6,103	14.762	18.235	16<17, 18
진로교육 독립 공간	7,144	0.468	0.499	6,912	0.530	0.499	6,103	0.604	0.489	16<17<18
진로교육 복합 공간	7,144	0.229	0.420	6,912	0.205	0.404	6,103	0.174	0.379	18<17<16
진로교육 공간 없음	7,144	0.302	0.459	6,912	0.264	0.441	6,103	0.223	0.416	18<17<16
진로전담교사 경력	7,144	4.756	1.492	6,912	5.507	1.678	6,103	6.131	2.128	16<17<18
여학생	7,144	0.527	0.499	6,912	0.569	0.495	6,103	0.487	0.500	*
학습 태도	7,144	3.516	0.795	6,912	3.530	0.762	6,103	3.569	0.822	16, 17<18
부모와 진로 대화빈도	7,144	3.263	1.020	6,912	3.329	1.011	6,103	3.414	1.034	16<17<18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20]	5,551	16.264	1.842	5,772	16.091	1.714	5,963	14.585	1.720	18<17<16
국공립	7,144	0.595	0.491	6,912	0.616	0.486	6,103	0.570	0.495	*
2학년 학급 수	7,144	8.869	3.246	6,912	9.180	3.069	6,103	8.417	3.115	*
학교 소재 대도시	7,144	0.373	0.484	6,912	0.401	0.490	6,103	0.345	0.475	*
학교 소재 중소도시	7,144	0.383	0.486	6,912	0.376	0.485	6,103	0.392	0.488	.
학교 소재 읍면/도서벽지	7,144	0.244	0.430	6,912	0.222	0.416	6,103	0.263	0.440	*

20) 부모의 교육기대 연한은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활용하였으며, 분석한 사례 수를 기준으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음.

Abstract

The Effect of High School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Policy in South Korea : Differential Effects of Parent Education

Youngsun Lee

Main Advisor: Jeong, Dong Wook, Ph. D.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examines that the effect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CTE) policy in high schools might be enhanced when it goes aside with parent education relating to career guidance. While

parents play a key role in adolescence's career decision-making, parents in South Korea also exert influence to career guidance in school curriculum. Hence, the study hypothesizes that CTE policy in South Korea—establishing school career guidance resources for students—would be more effective when a school provides parent education relating to career guidance.

Before studying on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conducted literature analysis to examine the contents and the process of parent education relating to career guidance. Using the collected data from School Career Education Survey of 2016 to 2018,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 in South Korea, the study used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Pooled OLS) with year-fixed effect. 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was applied to reflect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data.

The findings demonstrate as follows; first, lecture-type parent education program relating to career guidance named 'Career Academy' was popular and has been implemented in high schools. The contents were diverse and relevant to parents' career guidance for their children, but not all schools were having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there were great discrepancies depending on regions.

Second, the material resources in schools endowed by CTE policy were positively linked to career education performances.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school career guidance. Also, they showed higher level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in schools

which secured more institutions to provide job experiences and had independent classrooms for career guidance. In addition, schools that held parent education relating to career guidance also showed higher career education performances.

Thir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material resources and career education performances were likely to increase in schools holding parent education relating to career guidance. Meanwhile, respective career counselor's length of work experience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student career education performances. Providing parents with career-related education had no moderating effects on student career education performance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mainly suggests that CTE policy should emphasize parent education in high schools as well as investing the material resources for career guidance. Also, for career counselors to show their specialty, fellow teachers and principals should cooperate with them and make joint efforts through sharing the vision of school career guidance.

Keywords: parent education relating to career guidance,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policy, school resources for career guidanc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

***Student Number*: 2018-21619**